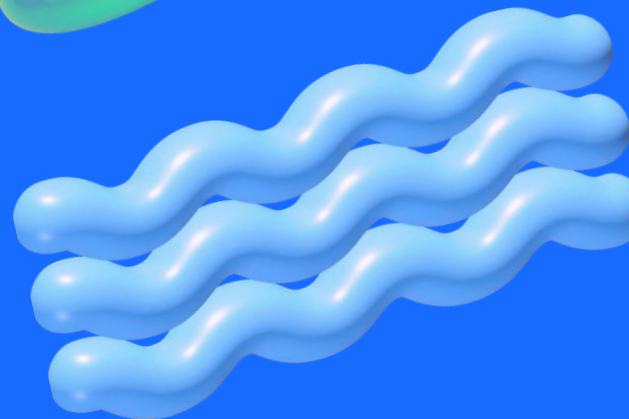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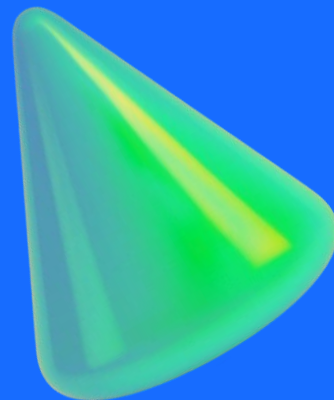


창원문화산단 청년디자인리빙랩 운영 및 서비스디자인 제안

결과 공유회



일시 2025.12.17(수)

S-CUBE DESIGN LAB

사업 개요

사업명

창원산단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사업기간

2025. 06. 20. ~ 2028.12.15. (4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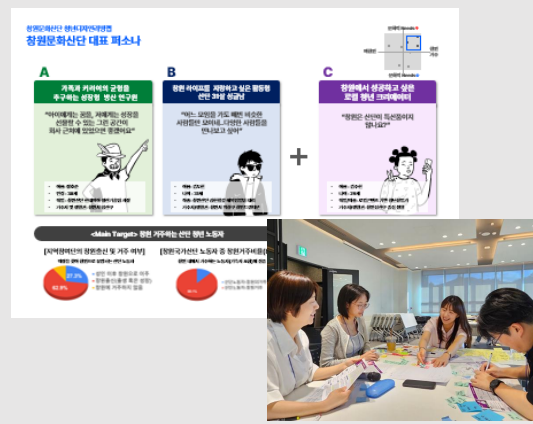
1차년도 목표

1. 창원산단 청년 디자인 리빙랩 운영 (5회)
2. 창원산단 청년 패널 운영 및 설문조사
3. 창원산단 특화 아이디어 및 시나리오 개발(12건)

사업범위

사용자 수요와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산업단지에 필요한 신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을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

서비스디자인 기반 리빙랩 운영



1차년도 예상 산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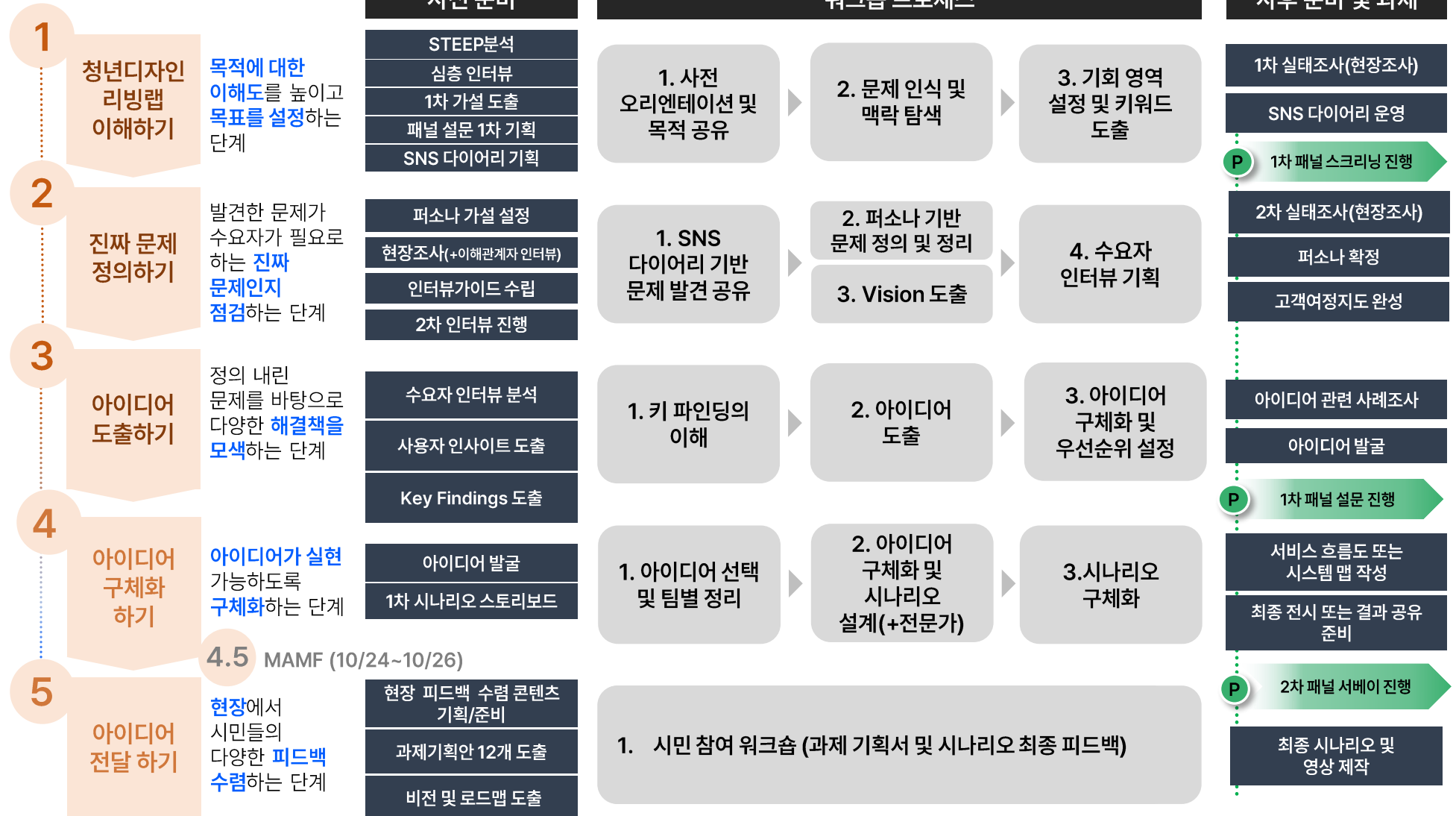
전략 방향성 도출



아이디어+사나리오 영상



1차년도 프로세스



People Driven City _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산단 문화 만들기

◆ 어떻게 하면 산단 노동자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까?



시민 대표단 심층인터뷰



서비스사파리(현장조사)



아이디어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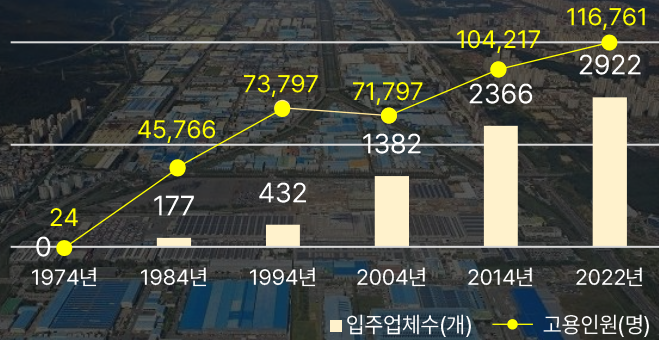
시민참여형 워크숍

- 시민 대표단 심층인터뷰 : **8명**
(산단노동자 2명, 공무원 3명, 청년창업가 2명, 대학원생 1명)
- 대표단 시민 인터뷰 : **16명**
(산단노동자 5명, 청년창업가 2명, 대학/대학원생 9명)
- 패널 설문 : **141명**
(전체 패널 중 산단 노동자 43명)
- 시민참여형 워크숍 : **5회**
- 서비스사파리(현장조사) : **5회+**
- 퍼소나 : **3건**
- 고객여정지도 : **3건**
- Key Findings : **6개**
- 1차 아이디어 : **+ 100개**
- 2차 아이디어 : **21개**
- 3차 아이디어 : **12개**

창원산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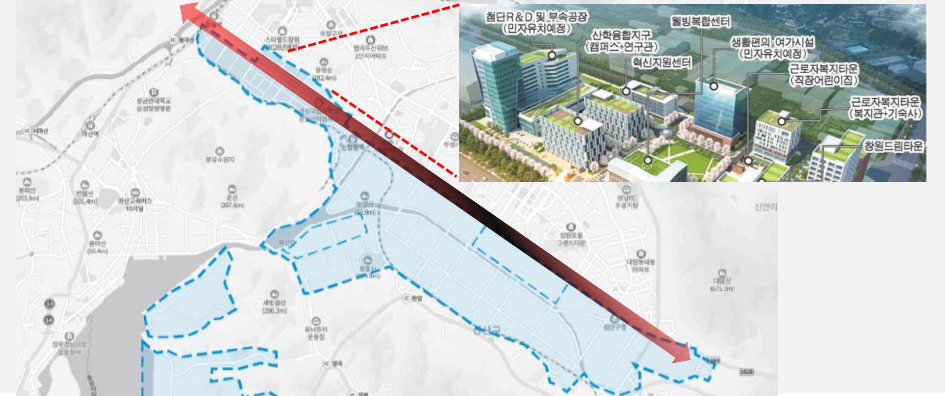
2024년 62조원 '사상최고' 고용 인원 전국3위

1974년 이후 입주 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2024년 기준 3,216개 업체 입주 (고용 120,289명) 생산액 62조



2013년, 구조고도화 산단 추진

업종고도화, 정주여건 개선, 디지털·친환경 산단 구현 등 총 15건,
1조 952억원 규모 사업추진



산단 활력의 또 다른 대안 '창원대로의 산단화' 진행중

산단과 도심 분리의 상징이었던 창원대로가 미래 50년에는 산단과 도심 두 기능을 함께
담아내는 연계와 융합의 상징으로 탈바꿈 진행



창원 시정 목표 1번, 4차 산업혁명 1번지

창원은 원전·방위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혁신 생태계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풍요로운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업수도형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

일

4차 산업혁명 1번지

원전·방위산업 정상화 등
풍요로운 도시(창원) 육성



출처: 창원시

창원문화산단 청년디자인리빙랩
기계·방산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방산업체

20%

관련 기업

368개사

(국가지정 17개사, 창원소재 128개사, 관련기업223개사)

국내 방산매출

약 25%

협력사 진출예정

2,959개사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방산(방위산업) 분야의 혁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 (2020부터 5년간 540억원 투입)

창원국가산단 전경

성산/의창 중심으로 방산 인프라 多

성산·의창 일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위아 등 주요 방산기업뿐 아니라 국제사격장, 방위산업진흥센터 등 다양한 방산 인프라가 밀집해 있음

창원시 방산 인프라

방위산업진흥센터

창원국제사격장

창원시 기계·방산 MICE

창원에서 개최하는 기계방산 MICE는 방산 3건, 기계 1건으로 창원의 방위산업명성에 비해 비교적 약한 수준으로 나타남

창원시 기계방산 관련 MICE 현황

- 2024 이순신 방위 산업전
- 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 KIMEX 한국국제기계박람회
-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2024 이순신 방위 산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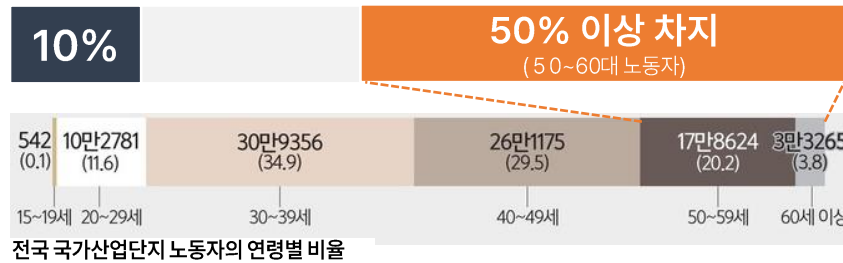
2025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청년 및 산단 인구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심각한 노령화와 청년층 세대단절

창원산단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노동자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50~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30대 이하 청년세대의 단절과 노령화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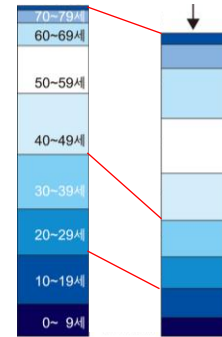
창원국가산단의 연령별 노동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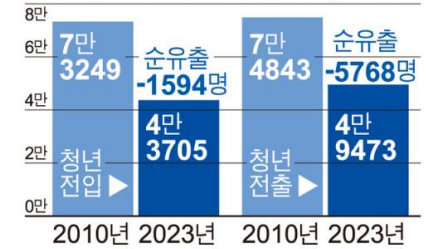
편의점 찾기 힘든 열악한 현실에... '신산업 체질'로 바꾼다 [킬러규제] 허파 | 세계일보
산업도시 창원 '성장 만능' 탈피... 사회문화정책균형 갖춰야 | 경남도민일보

창원시, 30대 중심에서 60대 중심 도시로

60·70대 인구는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12만 명 증가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창원시 청년 순유출 인구 (자료: 창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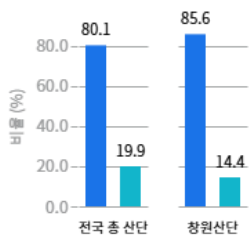
• 2030 지난 10년간 11만명 감소

청년 유출 갈수록 늘어나고 빠르게 늙어가는 창원시 | 경남도민일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편중된 노동자 성별 비율

고용 성비 86:14... 만남·교류 단절, '가정 꾸리기 힘든 일터'로 악순환

전국산단 vs 창원산단 남녀 성비 비교



- 전국 산단 평균 : 남성 80% / 여성 20%
- 창원국가산단: 남성 86% / 여성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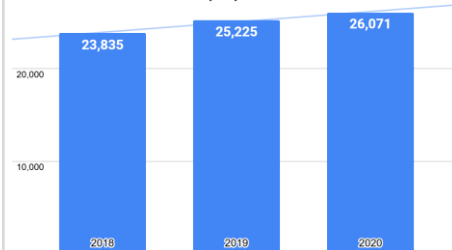
창원산단이 전국 산단 평균보다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더 높고,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향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2025 1분기) |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의 여성일자리 부족, 인구유출 가속화 요인

경남지역 여성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경남지역 주력산업 노동시장 진출은 어려워 (제조 중심 도시 내 청년여성 적합 직종 발굴해야)

창원 여성 전출 인구 (명)



창원 여성 전출 인구는 해마다 증가

- 창원여성의 주된 전출사유 '직업 36%'
- 창원의 남녀 인구 비율 격차 심화
전국 : 남성 49.7% / 여성 50.3%
창원 청년 : 남성 55% / 여성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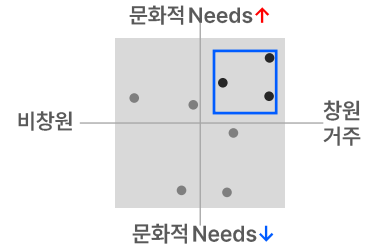
경남 주력사업 여성 진입 어려워... 제조업 직군 개발 중요 | 경남도민일보
창원 20대 여성 타지유출 심각...전출인구의 32.3% 차지 | 경향신문

창원문화산단 청년디자인리빙랩

창원 문화산단 연계 공간



창원문화산단 대표 퍼소나



A

가족과 커리어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장형 방산 연구원

“아이에게는 꿈을, 저에게는 성장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회사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름: 장호준
- 연령: 38세
- 직업: 창원산단 현대위아 생산기술팀 과장
- 거주지 및 생활권: 창원시 성산구

B

창원 라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활동형 산단 31살 싱글남

“어느 모임을 가도 매번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 이름: 김도현
- 나이: 31세
- 직종: 창원산단 삼현철강 해외영업팀 대리
- 거주지/생활권: 창원시 의창구 창원드림타운

C

창원에서 성공하고 싶은 로컬 청년 크리에이터

“창원은 산단이 특산품이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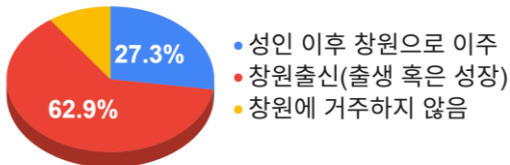
- 이름: 김주현
- 나이: 29세
- 직업/직종: 로컬콘텐츠 기반 청년창업가
- 거주지/생활권: 창원성산구 중심 생활



<Main Target> 창원 거주하는 산단 청년 노동자

[지역참여단의 창원출신 및 거주 여부]

직장을 찾아 창원으로 유입되는 산단 노동자



[창원국가산단 노동자 중 창원거주비율(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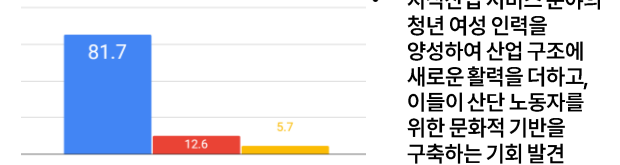
창원 내에서 거주하는 노동자(기숙사 포함)에 집중



<Sub Target> 창원 청년 창업가

[경남청년여성의 제조업 일자리 관심도 저조]

■ 관심없다 ■ 보통이다 ■ 관심있다



창원문화산단 대표 퍼소나 (A)

가족과 커리어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장형 방산 연구원



장 호 준 / 38세 / 창원산단 노동자

기본정보

- 직업 : 창원산단 현대위아 생산기술팀 과장 (기계방산경력 10년)
- 거주지 및 생활권 :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아파트 (거주지인근에 가음정근린공원, 상남도서관 위치)
- 이동수단 : 자차/출퇴근 10분내 가능
- 가족 구성 : 기혼 (아내, 초등 2학년 남아 1명)
- 배경·전공·전문분야 : 부산출신, 부산대 기계공학전공

선호 공간 도서관 / 공원 / 체육관 / 문화센터

근무 특성

- 평일 근무시간 08:00~17:30
- 기술회의, 현장 점검, 문제 해결 중심
- 퇴근 후 가족과 저녁 → 아이 숙제/악기 지도 → 자기계발

문화생활 패턴

- 소속된 동아리/모임 : 주말 만나질 단위 체험(과학·예술·메이커 활동), 시 소속 블로그 기자
- 가성비 VS 가심비
 - 아이들과 소소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콘텐츠 선호 (교육·체험 콘텐츠 중심)
- 문화생활 정보를 얻는 경로/채널
 - 5개 이상 (산단 내 오프라인 게시판, 현수막 및 창원시 관련 센터별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문화생활 시간대

평일

05~06시

21~22시

주말

09 ~ 20시

“아이에게는 꿈을, 저에게는 성장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회사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5시 반, 창원시의 한 수영장. 그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물속에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루를 살아낼 에너지가 충전된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계·방산 산업 중심지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욕심으로 창원에 정착했다. 낯선 도시였지만, 기회와 책임이 공존하는 곳이라 믿고 내려왔다. 6시 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한다.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는 가족의 하루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8시, 산단의 대기업 공장. 현장 점검과 기술 회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며 쉬면서 회복할 공간을 찾는다. 점심에는 회사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잠시 숨을 고른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작은 환기와 영감을 준다. 퇴근은 오후 5시 반. 교통 체증 속에서도 그는 차 안에서 과학·기술 오디오북을 들으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두 번째 하루가 시작된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가족 중심의 일정에 치우쳐 아이가 또래 속에서 어울리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 밤 8시 이후는 자기계발의 시간이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다. “배움과 나눔”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그는 개인 성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아이도 아빠의 일에 호기심을 보이지만, 기계·방산 산업 이야기는 여전히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주말이 되면 하루의 리듬은 달라진다. 아침 9시, 가족과 함께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날씨가 좋으면 귀산이나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고, 평소 주말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가족 모두 각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무엇보다 그는 늘 공공기관의 공지사항과 홍보 채널을 꼼꼼히 살피며, 아내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교육 프로그램·체험활동 기회를 찾아왔다. 새로운 경험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 믿으며, 주말 저녁에는 그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1. 생활 및 주요 동선 (자주가는 곳)

평일

체육관(아침운동) → 회사(업무) → 귀가 후 가족 활동(저녁·숙제 지도) → 자기계발(온라인 강의·독서)

아침 수영으로 하루를 깨우며 체력과 집중력을 관리하고,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물입형 근무를 한 뒤, 저녁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늦은 밤에는 학습·독서를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 평일 루틴

주말

가족 체험(과학관, 메이커스페이스) → 점심 외식 → 문화센터(도서관/악기 연습) → 야외 산책 → 귀가

가족 체험을 단순한 놀이가 아닌 아이 교육과 자신의 전문성 학습으로 연결하고, 점심 외식과 문화센터 활동 후에도 경험을 대화·기록으로 확장해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주말 루틴

2. 주요 니즈

- 개인 성장과 커리어 발전을 위한 물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 퇴근 후 짧은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밀도 체험 기회
- 산단 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체험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
- 산단이 ‘일터’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의미를 찾는 공간으로 재해석되길 희망

3. 참고 사항

- 평일 저녁과 주말 만나질만이 여가 시간 → 시간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 선호
-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체험 후 기록·정리하는 습관이 있음
- 지역 기반 문화·여가 정보 접근성 부족을 느껴, 산단·지역 연계형 정보 제공이나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큼

창원문화산단 대표 퍼소나 (B)

창원 라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활동형
산단 31살 싱글남



김도현 / 31세 / 중소기업 노동자

기본정보

- **직업/직종:** 창원산단 중소기업 해외영업팀 대리
- **거주지/생활권:** 창원시 의창구 창원드림타운 거주
- **가족구성:** 미혼, 1인 가구
- **배경/전공/전문분야:** 상경계 전공, 수출영업 5년차
- **출퇴근 패턴 및 이동성:** 도보 출퇴근, 자전거 이용 / 주말·휴일 렌트카로 장거리 원정(부산·거제·대구 등)

선호 공간

운동장/헬스장/쇼핑몰

근무 특성

- 기본근무 시간 09~18
- 해외영업팀 소속으로 해외출장, 야근 종종
- 해외 화상회의, 보고서 마감시 저녁까지 연장근무

문화생활 패턴

- **소속된 동아리/모임:** 러닝 크루, 스포츠 동호회 (러닝/사이클 중심, 주 2~3회 참여)
- **가성비 VS 가성비**
 - 값비싼 장비·이색 스포츠 체험에 기꺼이 투자
 - 마라톤, 크로스핏 대회 참가
- **문화생활 정보를 얻는 경로/채널**
 - 1개(스포츠 동호회 카카오톡방)

문화생활 시간대

평일

21~23시

주말

09~20시

“어느 모임을 가도 매번 비슷한 사람들만 보이네..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김도현(가명, 32세)은 대학 졸업 후 홀로 창원으로 내려와 해외영업 업무 5년차 대리를 맡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본가와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외로운 도전이다.

해외출장이 잦고 업무 강도가 높은 직무 특성상, 그는 퇴근 이후에도 머릿속이 쉽게 식지 않는다. 회사는 거주지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어 가까워 좋지만, 생활반경이 단조로운 면도 있다. 그래서 하루의 긴장을 풀고, 리프레시 하기 위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었다.

창원드림타운 내 휴게 공간이나 공용시설은 형식적이라 동료와의 교류가 거의 없어, 운동이 유일한 오프라인 사고 활동이 되었다.

평일 아침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스트레칭을 한 뒤 걸어서 출근한다. 낮에는 해외영업 업무로 바쁘게 지내지만,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들고 짧게 산책을 한다. 길이 산책에 잘 맞지는 않지만, 동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에 소중하다. 다만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야근이 있는 날에는 혼자 짧게 클라이밍이나 헬스를 하고, 야근이 없는 날에는 러닝크루에 참여한다.

기록을 쌓고 새로운 코스를 달리는 과정에서 그는 성취감을 느끼고, GPS 러닝 헬린지처럼 색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이어간다. 그러나 창원산단 일대를 지나칠 때면 먼지와 트럭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러닝이나 사이클링을 즐기기는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는 늘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주말이면 더 큰 도전을 찾아 부산이나 거제까지 원정을 떠난다. 새로운 코스를 달리며 한계를 시험하고, SNS에 기록을 남기면서 또 다른 성취를 얻는다. 그는 이런 활동을 공유하며 창원 안에서도 스포츠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기부런이나 헬린지 같은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다시 활력을 얻는다.

1. 생활 및 주요 동선 (자주가는 곳)

평일

기숙사 → 회사(업무) → 운동시설(클라이밍/크로스핏) → 기숙사

평일에는 주로 퇴근 후 고강도 운동(클라이밍/크로스핏)을 하는데,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러닝 크루나 짧은 야간 러닝에 참여하기도 함.

주말

기숙사 → 러닝 크루 모임(도심/야외) → 브런치·동호회 교류 → 장거리 원정 러닝·대회 → 기숙사

주말에는 시외버스나 공유차량을 통해 러닝 크루 활동을 통해 외곽(부산·거제·대구 등)으로 나가는 편이며, 장거리 대회 참가나 원정 런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니즈

- 퇴근 후 짧은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 기회가 필요함
- 기숙사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줄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원함
- 창원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러닝·사이클링 인프라가 절실함
- 창원이 좀 더 스포츠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되길 바램
- 단순한 운동이 아닌 GPS 아트 런·기부런 같은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선호함
- 운동 성과를 기록·공유하며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길 원함

3. 참고 사항

- 미혼, 싱글
- 기록 향상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음
- 부상에 대해 민감해, 운동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은 공간은 피함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낌
-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음

창원문화산단 대표 퍼소나 (C)

창원에서
성공하고 싶은
로컬 청년
크리에이터



김 주 현 / 29세 / 청년창업가

기본정보

- **직업/직종:** 로컬콘텐츠 기반 청년창업가
- **거주지/생활권:** 창원성산구 중심 생활/ 도심카페, 사무실과 산단을 오가며 활동
- **가족구성:** 미혼, 1인 가구
- **배경 /전공/전문분야:** 디자인전공, 브랜딩/로컬콘텐츠 기획 전문
- **출퇴근 패턴 및 이동성:** 자차이동 / 도보, 대중교통 병행

선호 공간 카페, 체험형 공간, 플리마켓

근무 특성

- 자유로운 업무시간, 업무-여가경계가 흐림
- 협업, 네트워킹이 중요
- 현장조사를 위한 시내/시외 출장 잦음

문화생활 패턴

- **소속된 동아리/모임:** 창업가모임, 로컬크리에이터 동호회

가성비 VS 가성비

- 경험과 기록에 기꺼이 투자
- 업사이클링 제품, 로컬 브랜드 상품 구매 선호

문화생활 정보를 얻는 경로/채널

- 5개 이상 (예술가, 문화기획자 커뮤니티, 기관공식채널 등)

문화생활 시간대

평일

08-09

12-14

20-22

주말

13-20

"창원은 산단이 특산품이지 않나요?"

이민아(가명, 28세)는 디자인 전공을 마치고 창원에 남아 로컬 브랜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서울로 가지 않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창원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도전 의식은 컸지만, 초기 창업 생활은 외롭고 불안한 순간도 많았다. 그래도 "도시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버텨가고 있다. 평일 아침에는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며 노트북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 향 속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SNS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루틴이다. 낮에는 산단 관련 자료를 찾거나, 브랜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회의를 다닌다. 점심은 대체로 근처 식당에서 동료 창업가나 지인과 함께하며,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 오후에는 작업실이나 카페에서 디자인을 다듬고, 피곤할 땀 짙게 산책하며 리프레시한다. 저녁에는 네트워킹이나 로컬 행사에 참석한다. 크리에이터 모임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팝업 공간을 둘러보며 영감을 얻는다. 행사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거나 유튜브로 브랜딩·디자인 관련 콘텐츠를 보며 자기개발 시간을 갖는다. 간혹 영화나 음악 같은 가벼운 취미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사 정보가 단편적이라 더 많은 기회를 놓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주말에는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누빈다. 오전에는 로컬 마켓이나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신제품과 공간을 기록하고, 오후에는 창원 외곽이나 산단 주변을 탐방하며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저녁에는 그날의 콘텐츠를 정리해 SNS에 올리고, 피드백을 확인하며 브랜드 방향성을 다시 점검한다. 주말 저녁은 혼자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거나, 가까운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며 일주일간의 긴장을 풀기도 한다. 민아는 늘 "창원에는 왜 성수동 같은 거리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산단의 기술과 스토리는 위대하지만, 일상과 연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느낀다. 그래서 폐부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산단 근로자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저트 같은 아이디어를 꼭 시도해보고 싶다. 지역 안에서 선택지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팝업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면 가장 먼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게 창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창원의 이야기를 브랜드로 바꾸어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이자,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1. 생활 및 주요 동선 (자주가는 곳)

평일

도심 카페/사무실 → 산단 인근 기업-공간 → 저녁 네트워킹/팝업 행사
창업지원사업 / 로컬 행사에 참여하면서, 창원만의 공간, 경험, 사람들을 만나며 영감을 얻음.

주말

로컬 마켓·팝업 방문 → 산단 외곽 탐방(사진·영상 제작) → SNS 정리·피드백

오전에는 로컬 마켓에서 신제품과 공간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산단 주변을 돌아다니며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일부 지역은 보안·접근 제한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음. 저녁에는 SNS 기록과 피드백으로 성취감을 느끼지만 분석 도구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2. 주요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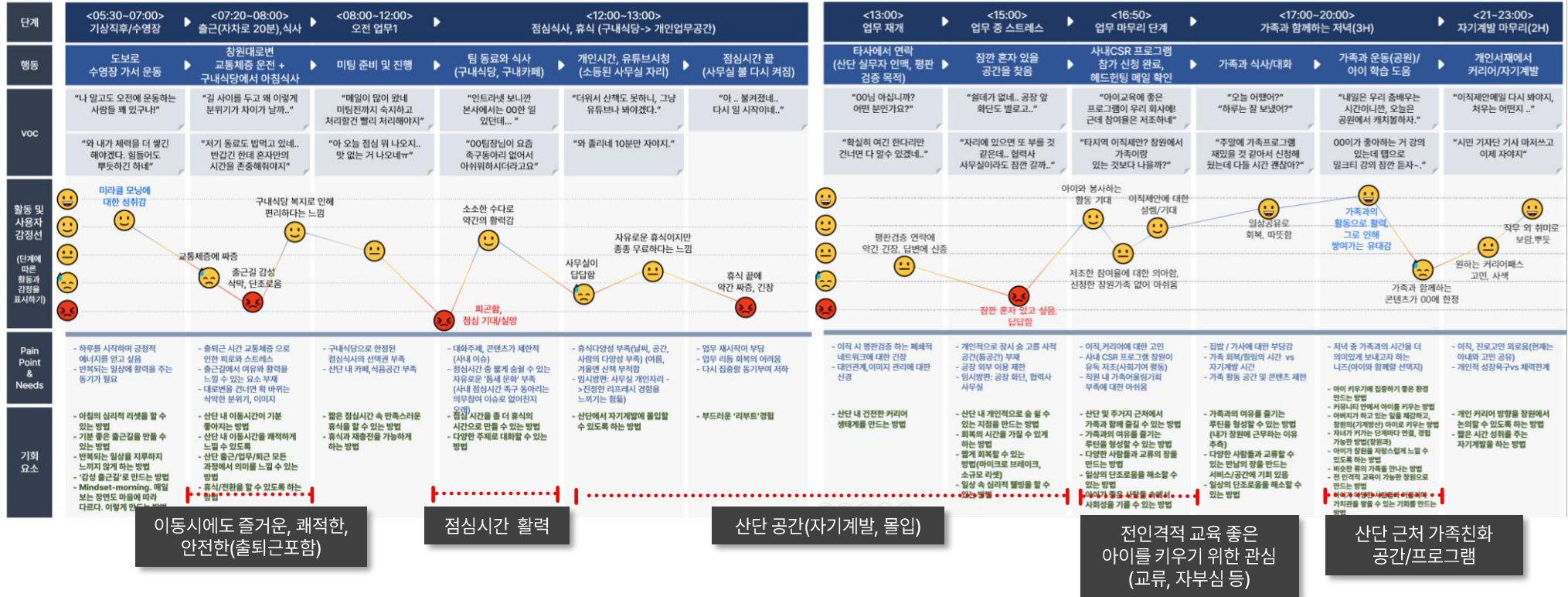
- 창원의 문화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로 발전시키고자 함
- 일에 몰입하는 평일 속에서도 저녁에는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원함
-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시도하고 기록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즐김
-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원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의미를 둠
-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길 원함
- 불확실성과 제약이 많은 창업 현실 속에서도 도전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 산단 자료·공간 접근성 부족, 주차난 등 환경적 제약으로 아이디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초기 창업의 불안정한 수입과 외로운 생활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함.
- 그러나 도전과 성취에서 에너지 얻는 성격으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버팀.
- 낮은 방식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도와 기록·공유를 통해 성장하려는 태도를 지님.

고객여정맵 주요 인사이트 도출

◆ A: 가족과 커리어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장형 방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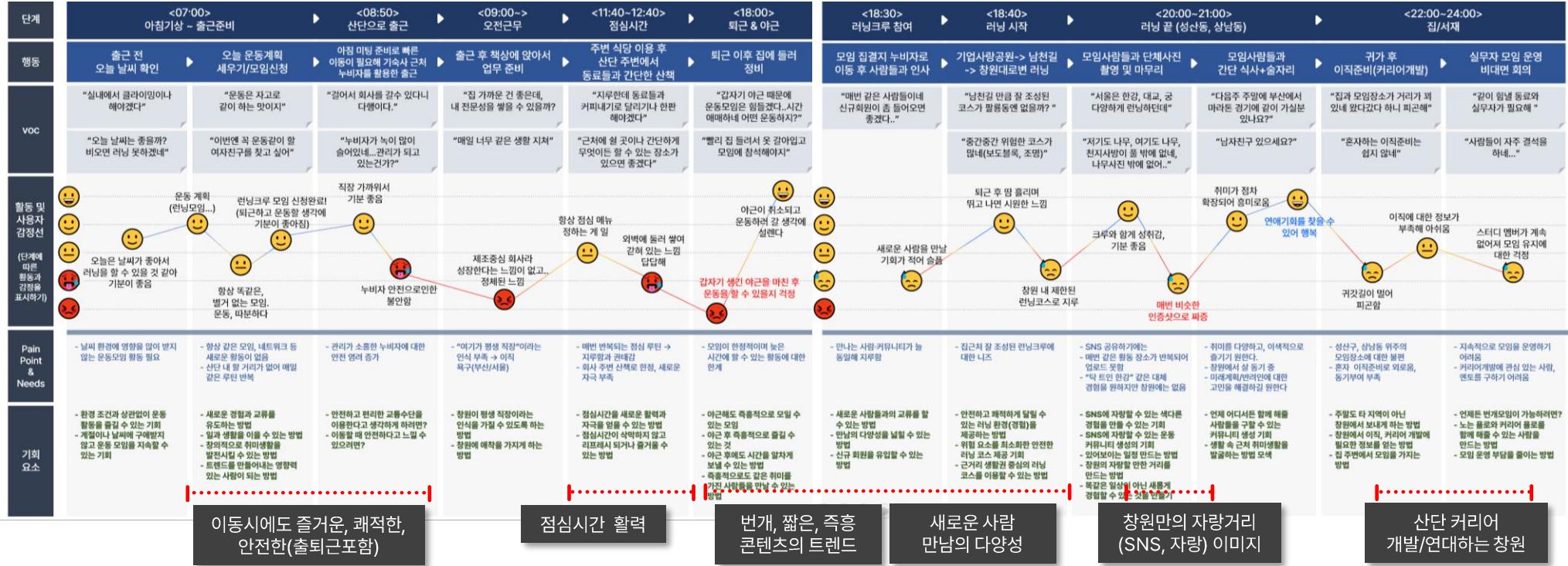


✓ 주요 인사이트

반복적인 이동과 출근의 시간을 '의미 있고 즐거운 루틴'으로 전환하길 원한다	일과 중 잠깐의 시간에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일과 이후에도 자기성장과 몰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산단과 가정, 일과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창원형 가족문화 생태계 조성되길 원한다
단순한 출퇴근 경로가 아닌 감성-풍경-경험이 있는 산단 이동길을 통해 일상 속 활력과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니즈가 드러남.	이는 미세휴식(Micro-Rest) 또는 일상 회복형 공간(Restorative Space) 개념으로 발전 가능함.	단순히 '퇴근 후 휴식'이 아닌, 자기계발-창의활동-취미학습 등으로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채우는 지속 가능한 산단형 몰입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함.	부모의 일터와 자녀의 배움, 가족의 여가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가족-산단 통합 프로그램이 요구됨.

고객여정맵 주요 인사이트 도출

◆ B: 창원 라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활동형 산단 31살 싱글남



✓ 주요 인사이트

일상 속 짧은 순간에도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찾고 싶어한다

- 출퇴근길-점심시간-퇴근 직후 등 짧은
시간 단위의 문화 경험 설계가 중요함.
- Instant Culture Zone : 이동 동선에
맞춘 5~10분형 체험 콘텐츠
- Micro Event Series : 짧은 공연, 팝업,
즉흥 전시 등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 단순한 사교의 욕구보다는
관계 속에서 성장과 자극을 얻고 싶은
사회적 니즈
- After-Work 네트워킹 라운지 : 퇴근 후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크로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 기업 간 협업,
문화-창작 워크숍 등

자신의 일상과 직업, 활동을 '멋지고
자랑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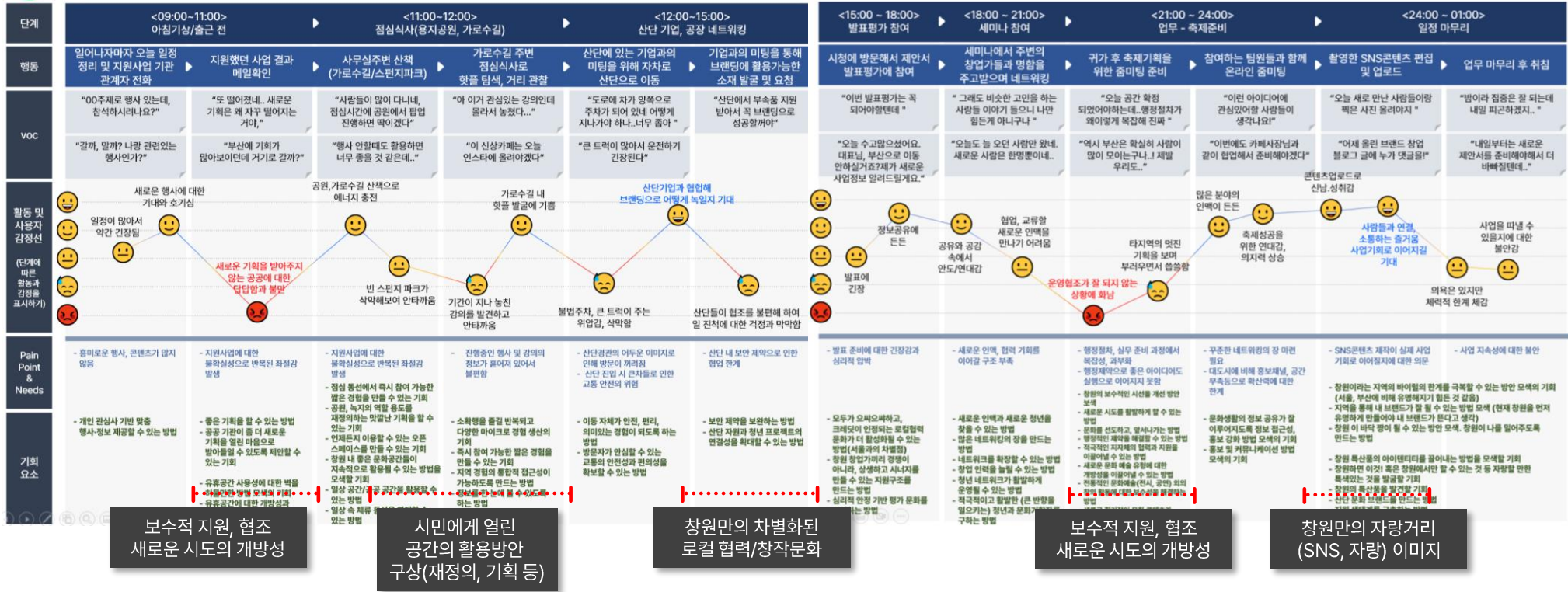
- 이는 단순한 SNS용 사진을 넘어,
"일과 여가 공존하는 긍정적 자기
브랜딩 공간"에 대한 욕구
- 산단형 SNS 인증 명소 : 조형물, 조경,
포토스팟 조성
- 자랑 콘텐츠 프로그램 : 사내 챌린지,
운동·취미 공유 해시태그 캠페인 등

창원은 현재 '일하러 오는 도시'이지만,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요건이 부족하다

- 반려인·청년·전문직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적
삶과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원함.
- 커리어 지속성 확보: 지역 내 성장형 일자리,
산업 간 이동성 확대
- 삶의 질 향상: 반려인 친화 인프라,
여가-문화시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고객여정맵 주요 인사이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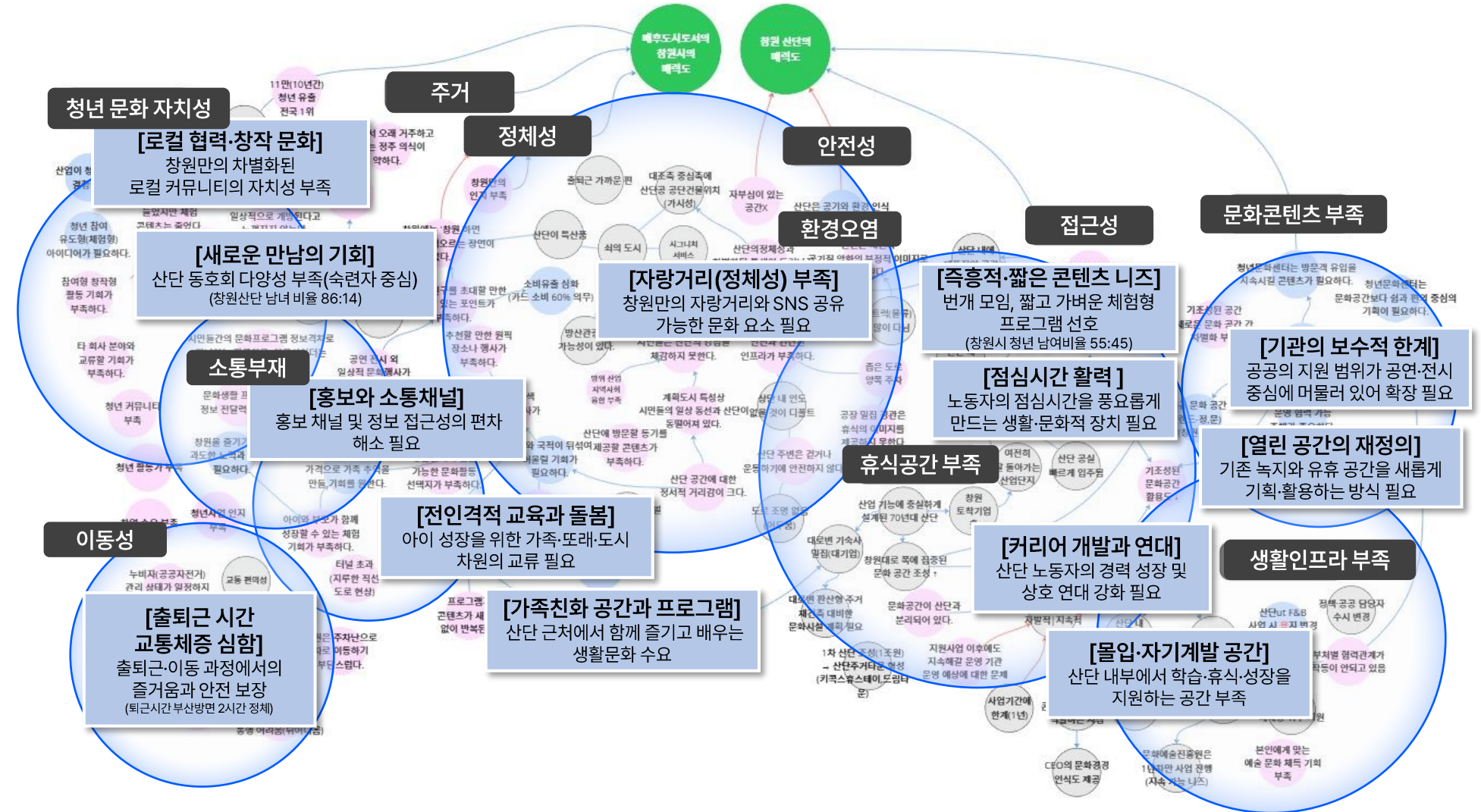
◆ C: 창원에서 성공하고 싶은 로컬 청년 크리에이터



✓ 주요 인사이트

보수적 제약을 넘어 열린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원한다 - 창의자유평역(Experimental Zone) : 규제 최소화, 행정 절차 간소화 - 유류공간 리뉴얼 프로젝트 : 청년-창작자 중심의 개방형 문화공간 운영 등	언제나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오픈형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 단순한 휴식 공간의 요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열린 생활문화 인프라에 대한 니즈 - 상시 개방형 오픈스페이스 운영 : 시간-행사에 구애받지 않는 시민 참여형 공간 등	경쟁이 아닌 상생과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로컬 협력문화를 원한다 - 단순한 교류의 부족이 아니라, 지역 내 청년-창작자-기획자 간 시너지와 상호 인정이 가능한 연결 구조에 대한 사회적 니즈 - 창원형 청년문화 리더 육성 :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역 청년 기획자 발굴 및 지원 등	자신과 브랜드가 주목받고, 창원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 지역 내에서도 개인의 영향력과 성취가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생태계에 대한 니즈 - 로컬 인플루언서 지원 프로그램 : 창원 기반 청년-창작자의 브랜딩 및 미디어 노출 강화 - 로컬 히어로 캠페인 :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브랜드를 발굴해 창원의 긍정 이미지 강화 등
--	---	---	--

Issue Finding



Key Finding

주요 인사이트	Key Finding		
[로컬 협력·창작 문화] 창원만의 차별화된 로컬 네트워킹·창작 생태계 요구	지역성과 로컬 문화	창원산단의 자부심과 로컬창작문화	1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창원이고 싶다. (창원산단/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교류·이벤트 필요	창원의 공간활용과 생활문화	산단 루틴에 스며드는 활력리듬	2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열린 공간의 재정의] 기존 녹지와 유휴 공간을 새롭게 기획·활용하는 방식 필요	정보, 제도, 참여 지원	(문화)공간의 재정의와 활용실험	3 유휴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도전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창원의 좋은 공간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불균형 해소] 홍보 채널 및 정보 접근성의 편차 해소 필요	트렌드와 콘텐츠 문화	우연한(가벼운) 참여와 즉흥적 만남	4 우연히 접하는 문화&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화/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기관의 보수적 한계] 공공의 자원 범위가 공연·전시 중심에 머물러 있어 확장 필요	교육/양육 가족문화	양육과 교류로 이어지는 가족문화	5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 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즉흥적·짧은 콘텐츠 니즈] 번개 모임, 짧고 가벼운 체험형 프로그램 선호	이동, 일, 연대의 문화	일과 커리어를 잇는 연대	6 청년의 활력이 살아나는 창원산단의 커리어 연대문화 활성화 (시니어 중심에서 청년 중심 문화로의 전환)
[지역/국가산단 자부심 자원] 창원만의 자랑거리와 SNS 공유 가능한 문화 요소 필요			
[점심시간 활력]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문화적 장치 필요			
[몰입·자기계발 공간] 산단 내부에서 학습·휴식·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부족			
[전인격적 교육과 돌봄] 아이 성장을 위한 가족·또래·도시 차원의 교류 필요			
[가족친화 공간과 프로그램] 산단 근처에서 함께 즐기고 배우는 생활문화 수요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출퇴근·이동 과정에서도 즐거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커리어 개발과 연대] 산단 노동자의 경력 성장 및 상호 연대 강화 필요			

Key Findin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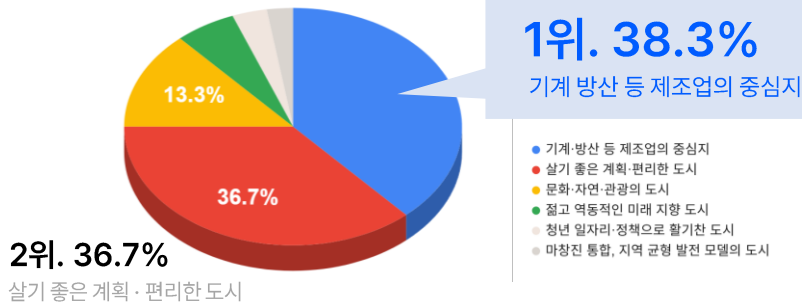
창원산단/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창원이고 싶다.)

창원국가산단 긍정적 기계방산 이미지 제고 필요

- ‘현재 창원 도시 이미지’는 ‘기계방산 등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38.3%)’

*지역참여단 1차 설문조사(120명 대상) 응답

현재 창원 도시 이미지



- 창원국가산단의 기계방산 시민체감도는 낮음
(시민들이 창원산단의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산업경쟁력을 체감하거나, 이해도가 낮아 그저 "공장 단지" 이라고 생각하는 편)

“산단의 강점을 살린 도시 상징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창원국가산단은 강점이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역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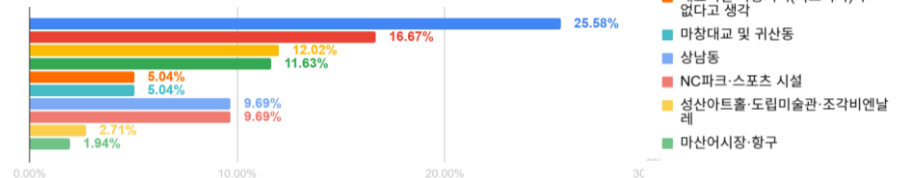
창원만의 자랑거리와 SNS 공유 가능한 문화 요소 필요

-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장치와 재해석 부족 (일상의 콘텐츠화)
물리적 자원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성적으로 경험하고 자부심을 느끼기 부족

창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시그니처)

1위. 25.58%
도로변 가로수/나무

3위. 11.63%
용지호수 및 도심공원



“창원하면 딱 이거다~라고 생각나는게 없네요..”
“정작 일상 속에서 그걸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잘 없어요”

국내 3대 조각가 중 2명이 창원 출신임 (문신, 김종영)



Key Findin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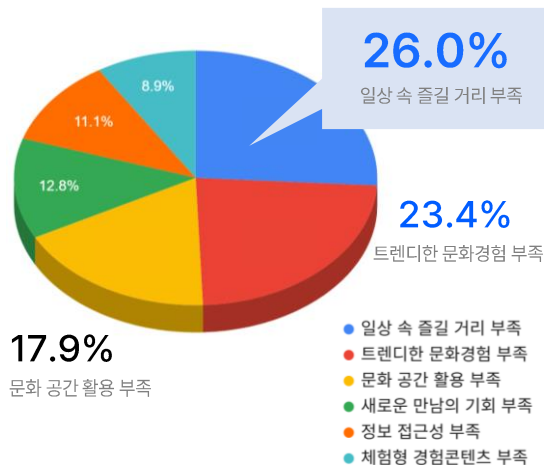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점심시간 활력]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일상 속 활력의 부족

- 점심시간이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짧고 즉흥적인 트렌디한 즐길 거리 부족(49%)

창원 문화생활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이유



*지역참여단 1차 설문조사(120명 대상) 응답

“큰 축제, 공연도 좋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중요해요.”

지역대표단

[몰입·자기계발 공간]

산단 내부에서 학습·휴식·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부족

- 1위 [일과 삶의 균형] 활력 넘치는 점심시간, 퇴근 후 등 일상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생활기반

청년이 머무는 산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산단 내부에 노동자를 위한 편의,문화시설 현저히 부족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단 내부로 들어오면 편의점, 카페도 찾기 힘들게 사실이죠. 회사 내에 휴게실도 딱히 없고요.”

지역대표단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출퇴근·이동 과정에서도 즐거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출퇴근시 매번 마주하는 산단의 어둡고 삭막한 경관과 이미지와 심한 도로 교통 정체

10/31(금) 17시경 성산패총사거리(산단인근)CCTV



- 창원산단 핵심이슈로 산단 이미지 및 경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

“산단엔 주로 8시 출근- 5시 퇴근이어서 그 시간대 전후로는 창원대로 일대가 완전 꽉 막히죠.”

“산단 주변을 걷거나 운동하기엔 위험해 보여요”

“공장이 밀집된 창원산단 경관을 보면 ‘여기서 쉬자’는 느낌을 받긴 어려워요”

지역대표단

Key Finding

6

청년의 활력이 살아나는 창원산단의 커리어 연대문화 활성화 (시니어 중심에서 청년 중심 문화로의 전환)

[청년중심의 산단문화로 재도약]

스마트한 인재로서의 창원청년 이미지 강화

- 현재 창원국가산단은 시니어(5-60대) 노동자 중심의 산단문화 고착
시니어 노동자는 숙련된 명장급 기술 인력이라는 핵심자산

창원국가산단의 연령별 노동자 현황

*경남도민일보

(5~60대 노동자)
50% 이상 차지

청년 10%

5-60대 시니어 중심의 고령화된 산단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산단 자체에 2-30대 청년이 워낙 적어서, 확실히 7-80년대 전성기를 이끈 시니어분들의 옛날 문화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대표단

- 산단 내 시니어-청년 연계를 통한 전문성 갖춘 ‘스마트 인재 (창원청년미래상1위)’ 양성



‘명장’급 시니어 인력과
‘초년생’ 청년 인력 간의
체계적인 기술 전수 및
교류 연계

창원청년 미래상
1위
“스마트 인재”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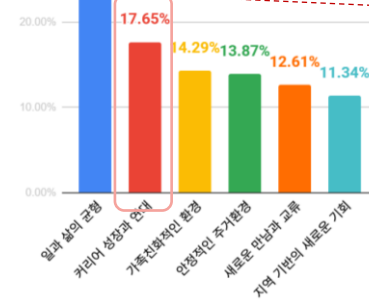
*지역참여단 1차 설문조사(120명) 응답

[산단 커리어 개발과 연대]

산단 노동자의 경력 성장 및 상호 연대 강화 필요

- 지역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커리어 성장과 연대가 청년을 위한 산단조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 - 2위

청년들이 '창원산단'에 머물고 싶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위 커리어 성장과 연대(17%)

직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연대할 수 있는 기회

“저희 회사에 젊은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뭐든 시도하고, 배워보려는 욕심이 있던데..”

지역대표단

- 산단 내부에는 실무자들의 경력개발과 연대를 위한 오프라인커뮤니티 부재
- 창원청년들이 산단에 유입될 커뮤니티, 정보 기반이 부족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

“산단 사람들은 커리어개발로는 각자 도생인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역대표단

주요 인사이트

[로컬 협력·창작 문화]
창원만의 차별화된 로컬
네트워킹·창작 생태계 요구

[새로운 만남의 기회]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교류·이벤트 필요

[열린 공간의 재정의]
기존 녹지와 유휴 공간을 새롭게
기획·활용하는 방식 필요

[정보 불균형 해소]
홍보 채널 및 정보 접근성의
편차 해소 필요

[기관의 보수적 한계]
공공의 지원 범위가 공연·전시
중심에 머물러 있어 확장 필요

[즉흥적·짧은 콘텐츠 니즈]
번개 모임, 짧고 가벼운 체험형
프로그램 선호

[지역 자부심 자원]
창원만의 자랑거리와 SNS 공유
가능한 문화 요소 필요

[점심시간 활력]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문화적 장치 필요

[몰입·자기계발 공간]
산단 내부에서 학습·휴식·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부족

[전인격적 교육과 돌봄]
아이 성장을 위한 가족·도래·도시
차원의 교류 필요

[가족친화 공간과 프로그램]
산단 근처에서 함께 즐기고
배우는 생활문화 수요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출퇴근·이동 과정에서
즐거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커리어 개발과 연대]
산단 노동자의 경력 성장 및 상호
연대 강화 필요

지역성/
로컬
문화

창원산단의
자부심과
로컬창작
문화

창원의
공간활용
/
생활문화

산단
루틴에
스며드는
활력리듬

정보,
제도,
참여
지원

(문화)
공간의
재정의와
활용실험

트렌드와
콘텐츠
문화

우연한
(가벼운)
참여와
즉흥적 만남

교육/
양육
가족문화

양육과
교류로
이어지는
가족문화

이동, 일,
연대의
문화

일과
커리어를
잇는 연대

Key Finding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
창원이고 싶다.

(창원산단/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창원 청년 아이덴티티 부재 또는 없음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유휴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도전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창원의 좋은 공간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연히 접하는 문화&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화/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
되어야 한다.

청년의 활력이 살아나는 창원산단의
커리어 연대문화 활성화
(시니어 중심에서 청년 중심 문화로의 전환)

아이디어

창원의 자랑거리이자 문화콘텐츠로 경험하게 하는 '창원산단 컨셉트 무기(방산)대전'

기계방산의 특성과 역동성을 체험하게 하는 '기계방산 전시·액티비티 시리즈'

청년에게 '정착과 자부심'을 주는 잡지 & 뉴스레터

창원산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산단 Art+Tech 공공디자인브랜딩

산단 노동자에게 출퇴근길 소통과 문화적 활력을 주는 Culture Façade Project

산단 직원을 위한 점심/퇴근 후 10분내 마이크로 틈새 문화 Zone

산단 노동자에게 활력과 교류를 제공하는 점심시간 틈새 중고기래/플리마켓 전용 유휴공간

산단을 '문화가 있는 도시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산단문화지도 서비스'

퇴근 후 활력과 친근감을 주는 '창원산단 나이트 런닝크루'

창원 청년과 산단 노동자에게 실무 경험과 로컬 문화기획 역량을 키워주는 '양성 프로그램'

산단 노동자에게 자연 속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활력을 높이는 창원 녹지 위케이션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열린 거점을 제공하는 '청년 공유공간 프로그램'

창원청년에게 자연스러운 교류와 활력을 주는 회원제 없는 7시 모닝커피 커뮤니티

기업기숙사 거주 산단청년 커뮤니티 : 산단 기숙사 청년 살롱

센터 프로그램_산단 노동자와 가족에게 행정·생활·돌봄 편의를 제공하는 '케어 서비스'

참여가 보상이 되는 시민참여 시스템: 창원문화산단형 문화리워드 적립 문화패스

창원문화 큐레이션 허브: 맞춤형 큐레이션 및 홍보/소통 강화

시민정원사와 함께 가꾸는 도시공원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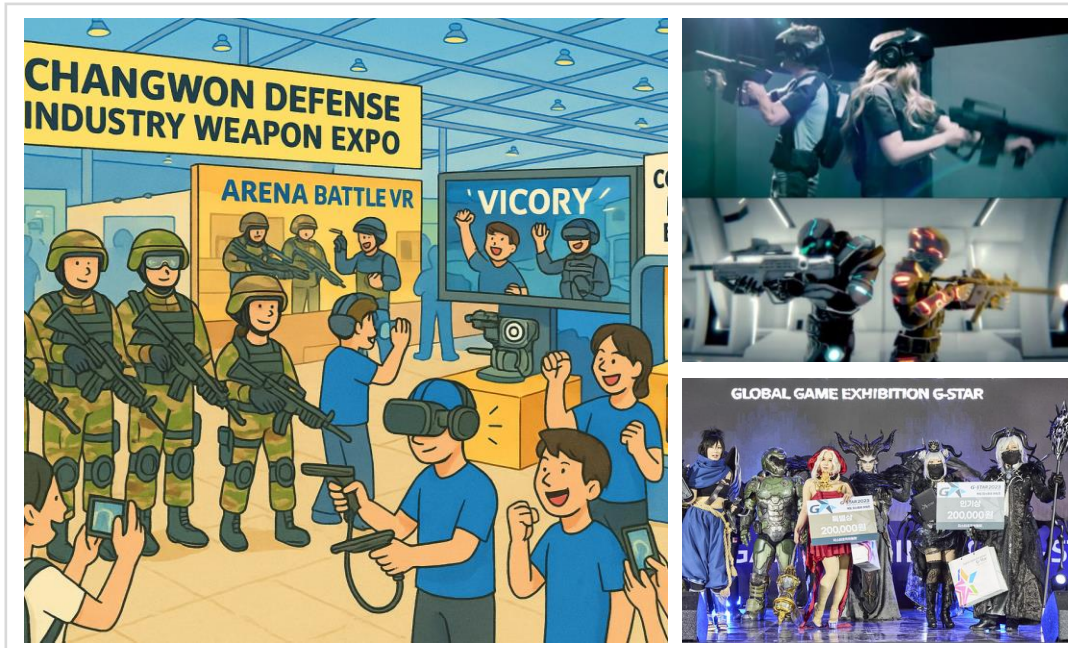
내 이름의 나무를 분양받는 '창원반려가로수 Zone' 활성화

산단 직원을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 '산단커리어 커넥티드 멘토링'

참여가 보상이 되는 시민참여 시스템: 시민문화 서포터즈 - 문화리워드 SYNC 제도

창원의 자랑 기계방산, '콘셉트 무기(방산) 대전'

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이고 싶다.)



핵심 포인트

창원의 기계방산을 **시민참여형 컨셉 무기대전으로 콘텐츠화**,
창원만의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게 만드는 산업X예술문화 콘텐츠

기계방산의 문화콘텐츠화

산업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협업구조(캡스톤, 공모전)

컨셉추얼 무기대전(페스티벌)
- VR, 인터랙티브 콘텐츠

창원 도시 브랜딩 효과

예상 Venue



컨벤션센터(CECO) 전시



청년문화센터



랜드마크

As-is

기술 중심의 방산



- 올해 첫 제정된 제 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규모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이 연구/부품/사업/학술/투자 등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창원 기계방산의 명성은 있으나 시민도, 외부인도 체감하지 못하고 인지도 부족

To-be

문화 중심의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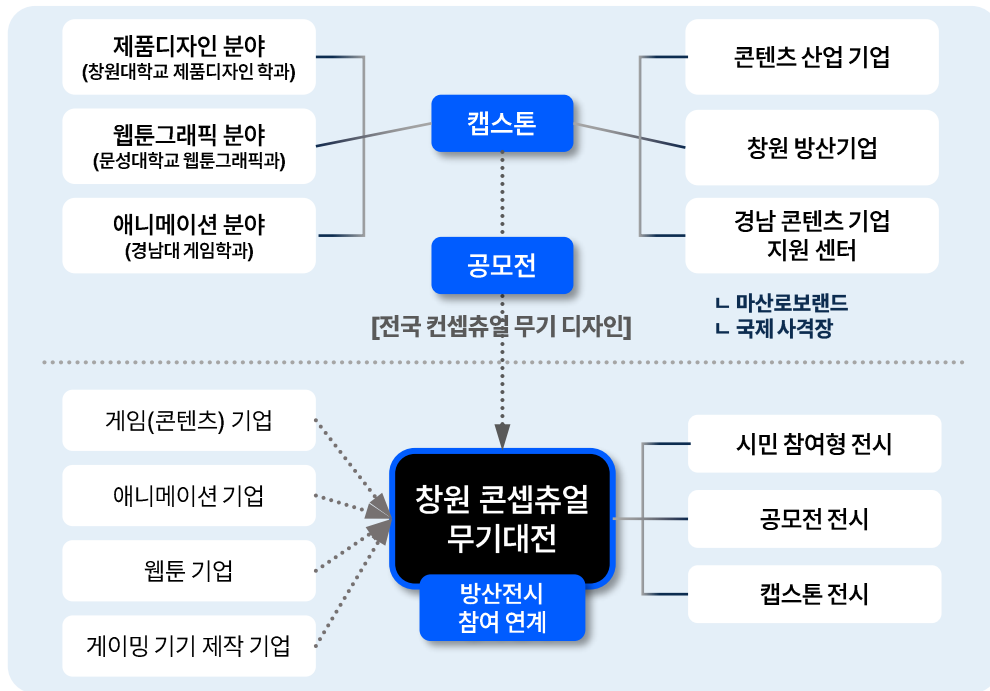


- 엔지니어, 디자이너, 시민이 협업해 창조하는 **산단형 융합 예술 실험장 / 시민과 창원 산단의 교류의 장**
- 산단과 시민의 접점, 방산이라는 기술중심 이미지의 벽을 허물고 대중적인 이미지, **문화 중심적인 이미지**로 창원과 외부의 인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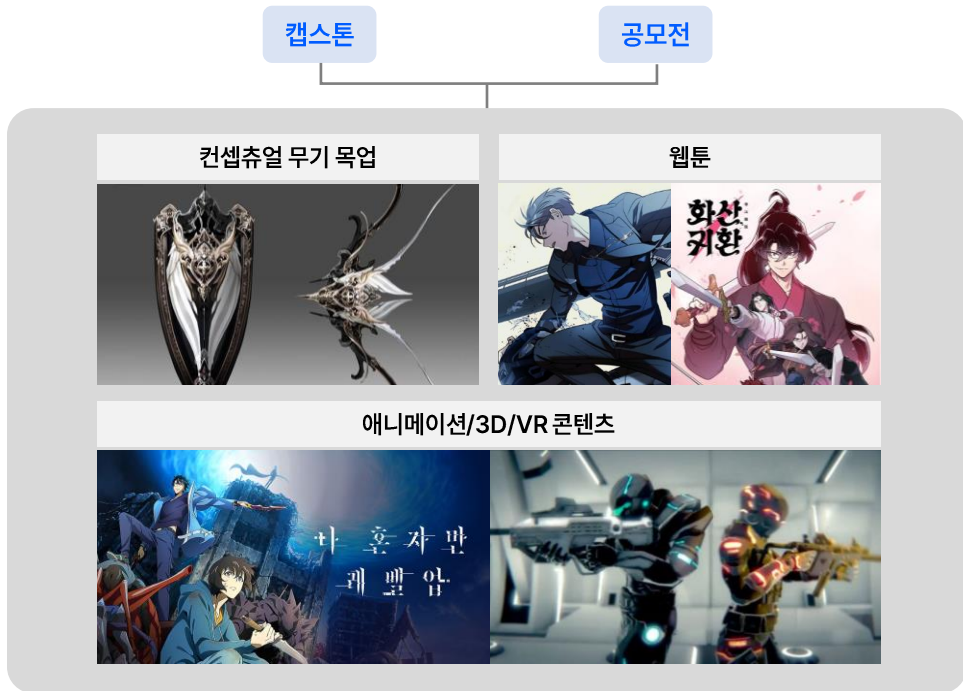
창원의 자랑 기계방산, '콘셉트 무기(방산) 대전'

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이고 싶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상세 이벤트, 활동



단계별 확장 / 로드맵

2026 방산 부품·소재 장비 대전 연계 참여



- 대상: 창원산단 기업·창원대학 학생들
- 주요 내용: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VR 기반 무기 콘셉트 시범 제작

[청년문화센터] - 실험형 파일럿 전시

- 대상: 산단 노동자·시민·청년 창작자·지역 콘텐츠기업
- 주요 내용: VR 공모전·코스프레 전시·산단 유희공간 활용 문화행사 운영

[랜드마크] - 체험형 전시 (상설 전시)

- 대상: 창원시·국내외 콘텐츠기업·해외 산업도시
- 주요 내용: 정례화된 전시 개최 및 글로벌 콘텐츠 교류·브랜드 사업화 추진

산단 내 10분거리, '마이크로 틈새 문화 Zone'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예상사용공간

- 시간대: 점심시간 (15분) 또는 퇴근 시간 직전/직후 (10분~20분)
- 장소: 산단 내 접근성이 높고 인파가 모이는 틈새 공간 (예: 공장 로비, 사무동 복도 코너, 직원 식당 입구 옆 유휴 공간, 작은 창고/침터 등)

협력주체

- 공간 제공/관리: 산단 내 개별 기업 관리팀 또는 산단 관리공단 (공간 사용 협의, 인프라 지원).
- 콘텐츠 제공: 지역 청년 예술가/예술 단체 또는 문화 기획자 (프로그램 및 작품 제공, 공연).
- 운영 주체: 창원시 청년 지원 기관 또는 지역 문화 재단 (프로그램 섭외, 운영 총괄).

As-is

-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자극을 받기 어렵고, 퇴근 후 긴 동선과 피로로 인해 문화 시설 방문을 포기함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틈새 경험이 부족

To-be

- 산단 내 유휴공간이 예술과 활력이 우연히 일어나는 곳으로 변신함
- 노동자들은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업무와 일상 동선 속에서 짧은 시간(10~15분) 동안 음악, 미술 활동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핵심 포인트

직장 내 짧은 여가시간(15분~20분)을 활용해 음악, 예술,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행복과 지역 청년 예술인 상생을 실현하는 문화공간

15분 음악회

틈새 갤러리, 체험존

스트레스 리프레시

청년 예술인 지원

아이디어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1: 예술존

- ① **점심 음악회**: 청년 예술가와 산단 동호회가 함께하는 점심 20분 미니 공연 운영. 근로자 휴식시간을 활용한 문화 리프레시 프로그램.
- 목표: 예상치 못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감성적 환기를 극대화
- ② **산단 복면가왕**: 근로자와 청년이 참여하는 즉석 가창 프로그램. 현장 투표로 인기상 시상 및 SNS 인증 이벤트 병행.
- ③ **틈새 갤러리/체험존 운영**: 복도나 코너 벽면에 지역 청년 작가의 소규모 미술, 사진 작품을 월 단위로 교체 전시하여 시각적 휴식 공간 제공.

2. 프로그램 2: 운동존

- ① **산단 스피드 러너**: 차량 속도 센서를 활용해 개인별 달리기 속도를 측정하는 점심·퇴근 후 참여형 프로그램. 기록 경쟁을 통한 활력 제공.
- ② **미니 농구게임**: 소형 농구골대와 팀전으로 진행되는 사내 스포츠 교류전. 승리팀 리워드 제공, 참여 인증 SNS 확산.

장점(Benefit)

- **스트레스 즉각 해소: 이동 시간이 없어** (동선 내 존재)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정서적 환기가 가능함.
- **지역 예술 연계: 지역 청년 예술가에게 새로운 공연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창의적 산단 이미지: 딱딱한 '공장/업무' 중심의 산단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청년 인재 유치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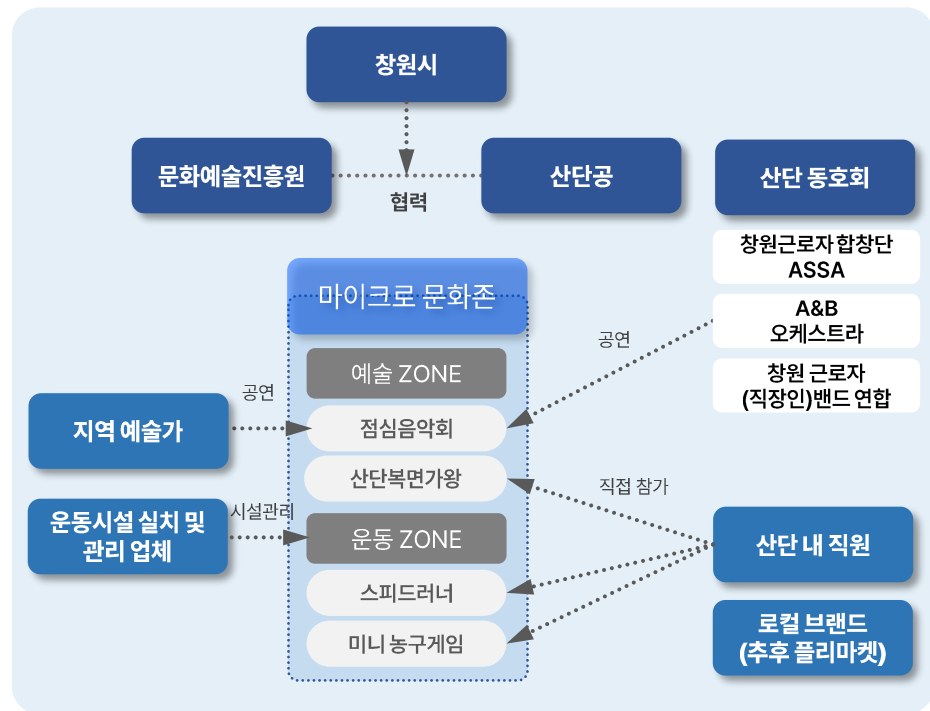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햇빛 각도, 계절소음 및 환경 문제**: 로비/복도에서 공연 진행 시 주변 근무자 및 회의실에 소음 피해 발생 가능. → 진행 시간(점심시간) 엄격히 통제, 소음 차단용 이동식 스크린 또는 무선 헤드폰 청취존 등 방음/차폐 시설을 보완.
- **예술 콘텐츠의 지속적 확보**: 노동자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술가 풀 확보 및 섭외 비용 문제. → 창원시 문화재단과의 MOU를 통해 지역 예술가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프로그램당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하는 예산 확보가 필수.
- **공간의 본래 목적 저해**: 유휴 공간이라도 복도, 로비 등은 근무자들의 통행로이므로, 안전 문제 및 통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 배치에 신중해야 함.
- 변화에 따른 그림자 정확도·시연성 유지 어려움
- 설치·유지비용 및 방청·내구성 관리 필요
- 초기 설계 시 전문가 협업(엔지니어링+예술) 필수
- 예술성과 안전성, 산업 이미지 간 균형 조정 과제

산단 내 10분거리, '마이크로 틈새 문화 Zone'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남천길 내 예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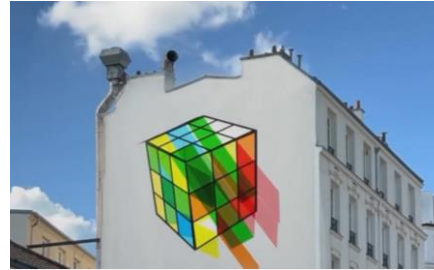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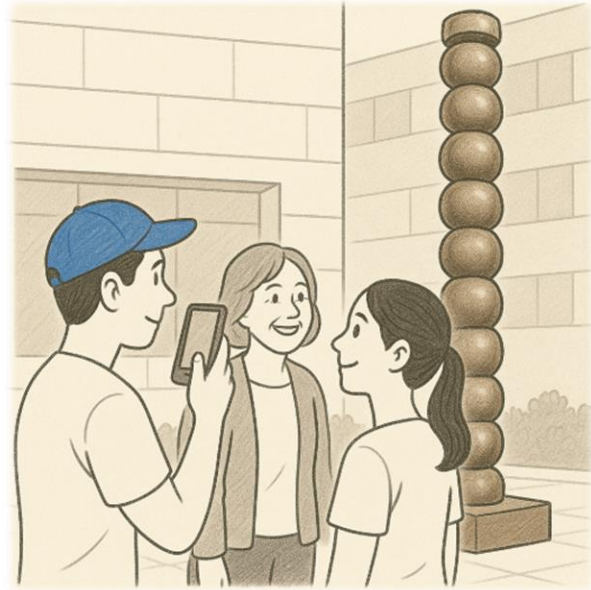
예술 ZONE		운동 ZONE	
점심 음악회 산단 내 동호회, 지역 청년 예술가가 참여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힐링형 공연	산단 복면가왕 근로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부담없이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단 내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산단 Sprint 러너 남천길 100m 구간에 Sprint달리기 구역 조성 속도 감지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달리기 속도를 측정하고 동료간 순위를 겨루는 게임형 이벤트	미니 농구게임 작은 농구 골대에서 슈팅 점수를 겨루는 마이크로 스포츠 프로그램, 근로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활력을 이끌어내는 산단형 피트니스 이벤트

예시사진



창원산단의 유산과 정체성, 'Art+Tech 공공 시그니처'

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이고 싶다.)



프랑스 예술가 피에르 브라울트,
컬러 플렉시글라스 설치물



조각가 문신, 김종영 등 작품 오마주
기계와 조각의 도시로서의 정체성 (기술+예술)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산단 노동자
- 예상공간: 가능한 열린 공간 창원산단 주요 관문 벽면, 공장 외벽·광장, 산업도로 진입로, 시민이 접근
- 시간: 낮(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 저녁(조명 연출 시)
- 협력 필요: 창원시·산단 기업·조형 예술가·공공디자인 전문가·조명/엔지니어링 팀

As-is

- 창원산단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랜드마크 부재
- 산업공간=폐쇄적·딱딱한 이미지 → 시민 접근성·관광 매력도 낮음
- 도시 인식이 "공장지대"에 머물러 있음

To-be

- 창원산단을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랜드마크 탄생
- 낮에는 산업미, 저녁에는 빛과 그림자의 미학으로 변하는 시간형 예술공간 조성
- 시민이 직접 찾고 사진을 남기며 산단을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

핵심 포인트

창원산단의 건물벽이나 유휴공간의 반복적 디자인적 설치물 배치
빛과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며 창원의 산업·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 조형물
(조각가 문신의 기계와 우주, 창조의 예술적 이미지를 산단에 반영)

시그니처 랜드마크 설치

인증샷 명소화

스토리 내포형 디자인

2026 창원 조각 비엔날레와 연계

아이디어 세부 내용

1. 문신 작가 오마주 작품 기획전

- 2026년 비엔날레와 연계, 기술 기반 조형물·산단 내 전시로 확장. 산업예술도시 창원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구축
- 창원소재 예술대학 및 신진작가 대상 공모를 통해 문신 조형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제작. 비엔날레 연계 "산단의 조각展" 개최

2. 기업 특화형 오마주 조형물 설치

- 각 기업의 정체성(기계·에너지·디자인 등)을 반영해 문신 작품의 형태·패턴을 산업소재로 구현. 공장 외벽, 진입로, 광장 등 설치

3. 시민참여형 조형체험 프로그램

- 조립형 문신패턴 키트(모듈형 조각요소)를 시민이 직접 조립·체험. 완성 작품은 '산단 문화지도'에 기록되거나 전시

장점(Benefit)

- 창원산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 시민 접근성과 미적 감성 결합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 SNS 인증샷 명소로 자연스러운 관광 홍보 효과
- 기계·방산 산업과 예술의 융합 → 도시문화 혁신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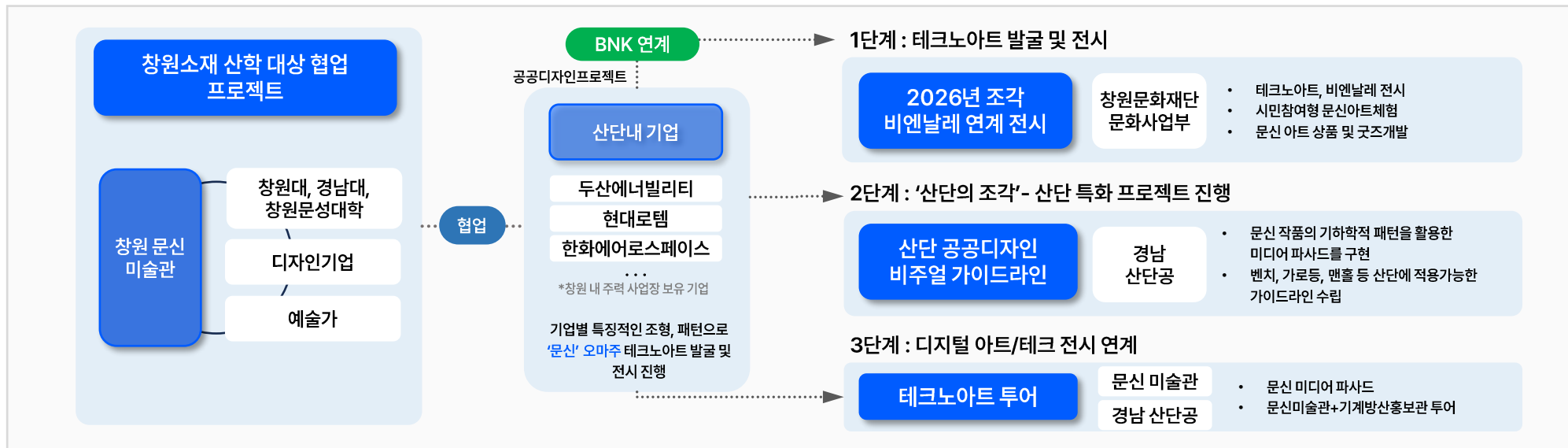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햇빛 각도, 계절 변화에 따른 그림자 정확도·시연성 유지 어려움
- 설치·유지비용 및 방청·내구성 관리 필요
- 초기 설계 시 전문가 협업(엔지니어링+예술) 필수
- 예술성과 안전성, 산업 이미지 간 균형 조정 과제

창원산단의 유산과 정체성, 'Art+Tech 공공 시그니처'

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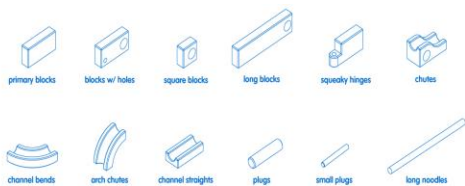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주요 시행 공간



상세 이벤트, 활동



산단 기업의 특징적인 요소를 활용한 문신 오마주 발굴

- 문신 작가의 대청과 반복을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을 3D 모델링하여 산단 기업들의 CAD/CAM 기술로 재해석하는 디지털 전시를 기획



문신 오마주 작품, 산단 특화 전시 시행

- 문신의 조각 및 예술품을 오마주한 작품들을 산단 내에 센터피스로 일정기간 전시



요소 조각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문신아트체험 콘텐츠

- 시민들이 문신 작가의 작품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 요소를 직접 조립·체험

Key finding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 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내 이름의 나무 분양, '창원 반려 가로수 Zone'



핵심 포인트

"창원 산단의 가로수에 나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가꾸는 반려나무로 문화산단을 만듭니다!"

산단노동자(가족)들이 산단 일대의 가로수를 '반려나무'로 입양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추억을 쌓는 경험을 통해 창원산단의 공간에 애착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문화산단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반려나무

#힐링도시

#남천길 가로수

#가족활동

예상 Venue



As-is

개성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일상적 산단공간



- 회색 건물과 직선 도로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산업경관
- 근로자가 머무르지 않고 이동만 하는 기능 중심 공간
- 문화·휴식·참여 경험이 부재하여 정체성과 활력이 약함
- 시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닫힌 이미지의 산업지대로 인식



To-be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천되는 생동감 있는 공간



-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공간으로 창원산단노동자가 출퇴근공간을 넘어 더욱 애정을 가지게 만드는 애착공간으로의 전환
- "가로수길, 이제는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길"

내 이름의 나무 분양, '창원 반려 가로수 Zone'

Key finding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 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창원산단 반려가로수 제도

창원시

창원시 산업단지계획과
일반산업단지팀

반려가로수 Zone 지정

한국산업단지공단

반려가로수-산단가족매칭

후원 기업

반려가로수 Zone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운영기업

행사운영

가로수 친구 임명식

시즌별 행사

남천길 가로수 문화프로그램

*제도 정착 후에는 창원청년 및 시민으로 대상 확대

상세 이벤트, 활동

반려 가로수 입양 하실래요?



반려가로수-산단가족 사연 공모 및 매칭



반려가로수-가족 매칭 임명식



남천길 가로수 문화프로그램(체험, 교육 등)



계절별 남천길 반려가로수 문화 프로그램 (플로깅봉사, 런닝, 커뮤니티 행사 등)



단계별 추진

1단계(1차년도)

남천길 내
'반려가로수 Zone' 지정

- 문화선도산단 사업 구역인 남천길(바람따라 걷고 싶은 남천길) 약 300m 시범 구간을 '반려가로수 Zone'으로 지정

'반려가로수-산단가족' 매칭

- (사연공모 및 분양) "우리 가족과 나무", "회사 동료와 함께" 등 특별한 사연을 공모 받아 추첨을 통해 반려가로수를 분양

'반려가로수 Zone' 활성화

- '우리 가족 반려나무' 임명식
- 시즌별 반려가로수 가족 행사 (크리스마스, 새해 등)
- 남천길 문화프로그램(환경, 공연, 문화예술 등) 및 가족 커뮤니티 행사(가로수 문화 축제 Festa)

2단계(2,3차년도)

프로그램 고도화

'반려가로수 Zone' 및
'매칭대상' 확대

- 산단내부-> 창원대로변, 스펀지파크 인근 가로수길로 구역확대
- 창원산단 근로자 -> 창원산단 외 근로자, 창원청년 확대

유희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도전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창원의 좋은 공간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의 활력이 살아나는 창원산단의 커리어 연대문화 활성화
(시니어 중심에서 청년 중심 문화로의 전환)

자연 속 업무 활력, '창원 녹지 위케이션'



핵심 포인트

삭막한 산단환경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몰입과 집중을 통해 업무 효율과 활력을 높이고 스마트 근로문화를 확산하는 위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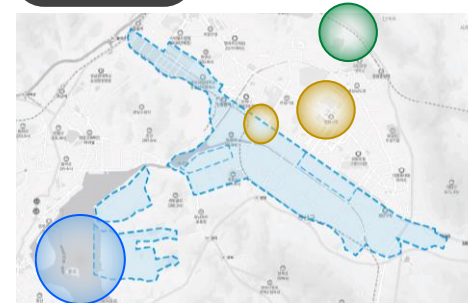
녹지경관을 활용한 몰입형
워크스페이스 제공

업무효율 향상 및 재충전형
위케이션

노동자 심리회복과
활력 복지 지원

스마트형 근로문화 확산 및
일문화 혁신

예상 Venue



산뷰

- 창원편백치유의숲
- 청량산 해양 전망대

공원뷰

- 용지호수공원
- 스펜지파크

바다뷰

- 3.15 해양 기념 공간
- 귀산 (바다+마창 대교 뷰)

As-is

삭막한 공장지대, 단조로운 일상

To-be

'공장형' '노동자에서' '스마트형' 노동자로의 일 문화 전환

"산단 내에는 빈공간이 거의 없다. 빈공간이 생기면 바로 기업이 입주해요."

"산단 속에 실만한 공간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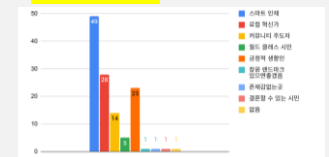
- '창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시그니처)' 1순위는 '도로변 가로수/나무' 3순위 용지호수 도심공원 총 36%차지

- 창원시 높은 수준의 녹지면적 (1인당 공원 면적이 전국 최고 수준, 창원시 약 469개 공원 보유)

- 삭막한 산단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자연 속에서 몰입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통해 창의적 업무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한 '일 문화'로의 전환
- 창원산단 노동자를 위한 복지로 일한다는 것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주어진다는 인식으로 전환
- 스마트한 인재들이 스마트하게 일하는 도시, '창원'으로의 이미지 변화

- '창원 청년'하면 떠올랐으면 하는 이미지 1순위

'스마트인재'



자연 속 업무 활력, '창원 녹지 위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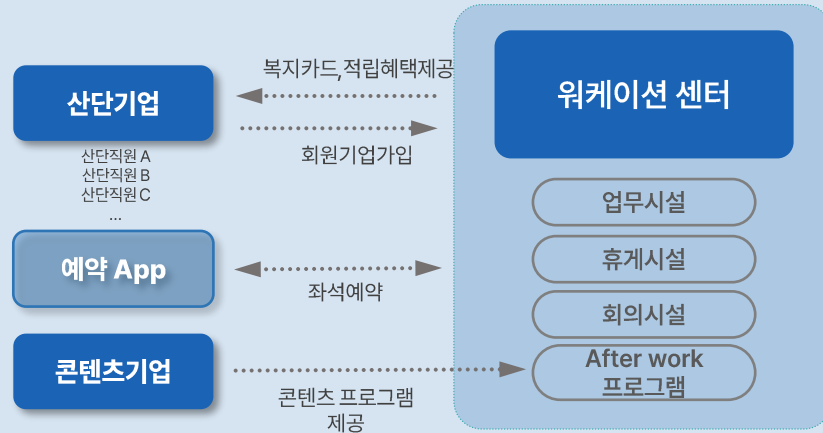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Key fi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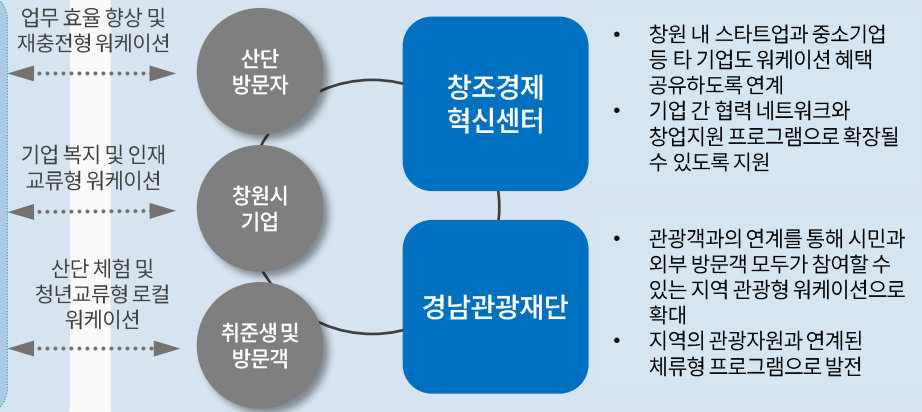
유희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도전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창원의 좋은 공간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의 활력이 살아나는 창원산단의 커리어 연대문화 활성화
(시니어 중심에서 청년 중심 문화로의 전환)

1단계 : 산단 직원 중심



2단계 : 창원시 기업 포함



상세 이벤트, 활동



ON-Boarding (준비)

- 웰컴 키트: 위케이션 가이드북, 제휴사 할인 쿠폰, 로컬 기념품 키트 제공
- 예약 플랫폼 제공: 공간, 좌석, 프로그램 실시간 예약 플랫폼 운영
- 이동 지원: 창원산단 ↔ 위케이션 센터 간 셔틀버스 운영, 교통 바우처 제공. (2단계 진행)



WORK (업무)

- 뷰-워크스페이스: 'Work in View' 콘셉트의 차별화된 업무 공간 제공
- 기업 워크숍: (4~5단계 확장) 단체 신청 기업을 위한 미니 워크숍 톨, 세미나실 대관.



AFTER-WORK (휴식 및 네트워킹)

- After Work 클럽 (웰니스): 요가, 명상 등 원데이 클래스.
- 로컬 투어 (관광): 전문 가이드와 함께 창원 관광지 투어
- 창원의 밤 (야간 활동): 마산 가포 야경 투어, 시티 뷰 레스토랑 연계 등 야간 맛집/명소 탐방.

기대효과

1 산단 노동자 복지향상

- 업무 효율, 심리적 만족도 향상
- 노동자 대상 복지 인식 제고 및 기업 내 조직문화 개선 유도

2 산단 이미지 제고

- 공장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스마트 일터로 전환
- '스마트한 인재들이 스마트하게 일하는 도시'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청년 유입 및 정착기반 강화

- 위케이션 공간과 연계한 직무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유입 증가 및 지역 내 취업을 제고, 인재 정착 기반 강화

산단 기숙사 커뮤니티, '청년 살롱'

우연히 접하는 문화&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화/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 서로의 커리어를 키워주는 창원만의 연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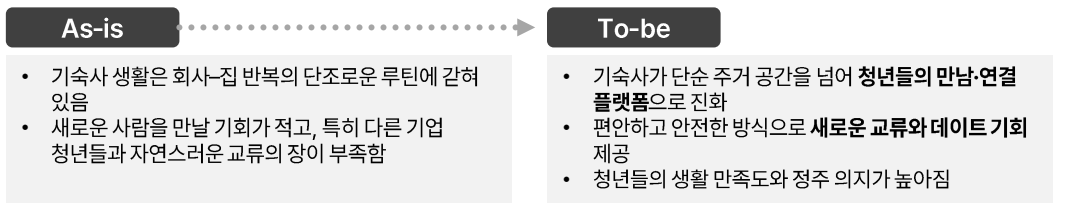
- 창원대로변 기숙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 청년 살롱
자치성을 기반으로 한 일상 속 활력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주 의식과 삶의 만족도 높임.
개인과 창원을 위한 주체적 Actor 로 참여
- 지역 커뮤니티 연계 교류 프로그램
 - 청년 노동자 교류문화 활성화
 - 심리적 안정 및 정주 지원
 - 로컬 문화, 여가 체험 프로그램

아이디어 세부 내용

- 1. 마이크로 모닝형 커뮤니티(Morning Club)**
 - 출근 전 러닝·스트레칭·커피모임을 결합한 소규모 그룹 활동
 - 기록공유(밴드·SNS) 기반의 성취감과 상호격려 문화 조성
 - 평일 중 운영, 기숙사 주변 러닝코스, 커피숍(로컬브랜드)와 연계
- 2. 퇴근 후 저녁형 커뮤니티(Evening Community)**
 - 청년근로자 중심의 소규모 관심사 기반 모임(요리, 운동, 공예, E-Sports)
 - 청년문화센터, 기업 내 공유공간을 활용한 산단 청년 노동자 정기모임
- 3. 주말형 로컬 네트워킹(Weekend Networking)**
 - 기존 산단동아리나 커뮤니티 모임들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 주말 네트워킹 지원
 - 커뮤니티를 넘어 커리어 확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킹의 장
 - 창원의 명소, 문화공간(용지호수, 가로수길, NC파크 등)과 연계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협력주체**
- **기업/기숙사 운영주체:** 공간 제공, 프로그램 안전·운영 가이드 지원
 - **지자체·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노동자 교류 지원금, 홍보 협력
 - **외부 파트너:**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기획사 등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주체
- 예상사용공간**
- 기숙사 라운지·카페형 휴게실 → 소규모 모임
 - 기숙사 옥상·공용주방 → 테마 이벤트(보드게임, 요리, BBQ 등)
 - 청년문화센터, 근처 카페·문화공간 → 외부 확장형



장점(Benefit)

-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욕구 충족**
- 단순 주거공간을 **문화·교류 공간**으로 전환
- 기숙사 → 산단 정착 이미지 강화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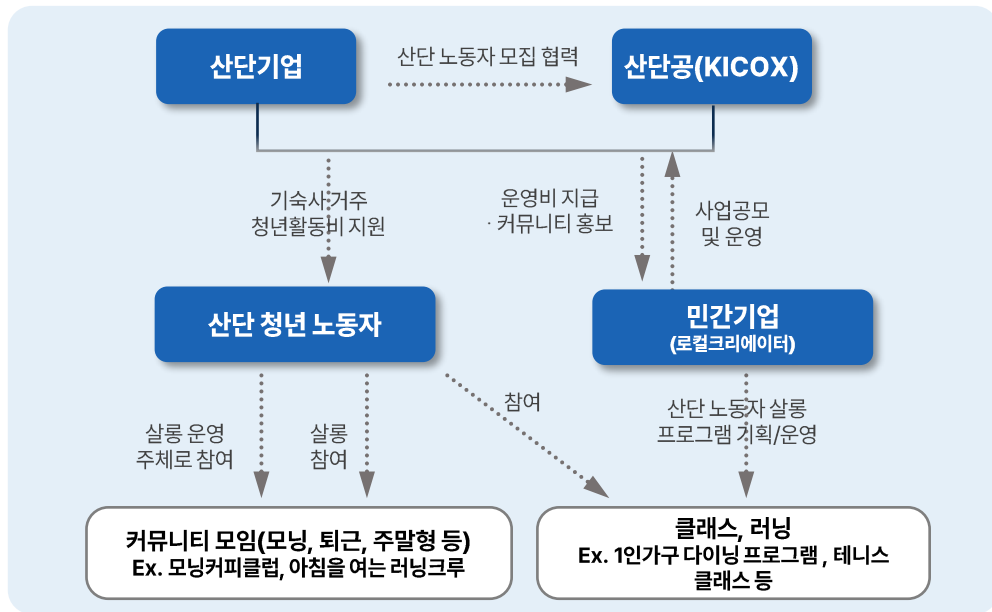
- 지속성 확보 필요: 공공(산단공)+ 기업(복지/인사팀) + 청년노동자)의 삼자 협력으로 운영 체계 구축
- 참여동기 강화: 문화리워드, 출석 인증제 등 참여실적 보상 구조 설계

산단 기숙사 커뮤니티, '청년 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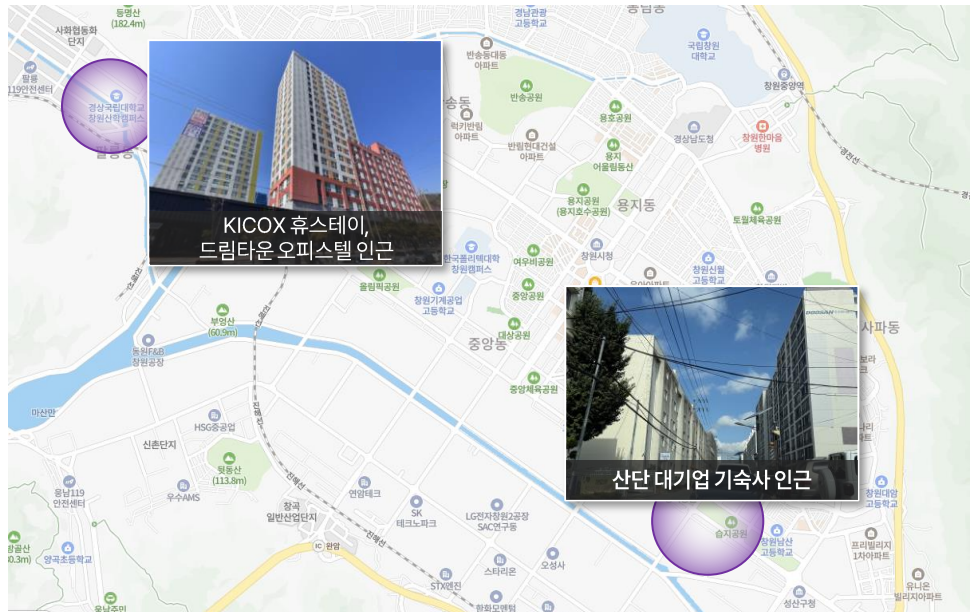
우연히 접하는 문화&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화/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 서로의 커리어를 키워주는 창원만의 연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기숙사 커뮤니티 zone



커뮤니티 유형

미라클 모닝형 [아침을 여는 산단형 러닝크루, 모닝커피 모임]

가벼운 아침러닝, 모닝커피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임
1) 크루 스팟에서 모여서 건강하게 러닝으로 하루 시작(매일의 기록 달성), 출근전 짧은 교류를 통한 성취감 고취

퇴근후 저녁형 [취향공유살롱&포틀럭]

- 퇴근 후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모임
- 1) 취향살롱 : 와인/커피 시음회, 로컬 맛집 탐방, 영화/독서토크 커뮤니티, E-SPORTS 대항전
 - 2) 포틀럭 파티: 인근공유주방을 대여해 각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와 나누는 식사 교류회
 - 3) 취미제대로 배우기: 러닝, 운동, 요리, 베이킹 등 전문가를 초빙해 취미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주말형 [확장형 네트워킹 & 로컬 투어]

커뮤니티 확장형 네트워킹의 장
1) 오픈네트워킹 파티 : 업계 실무자 간 정보교류, 신규 커뮤니티 홍보, 취미동료찾기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교류의 장
2) 근교투어 : 기존 산단 동아리 또는 신규 크루가 함께 창원 근교(예. 귀산, 주남저수지)를 탐방하는 주말 액티비티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청년 공유공간 프로그램'

우연히 접하는 문화&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접하는 문화/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창원청년이 말하는대로



핵심 포인트

센터를 열린 실험실·책방·카페·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산단과 시민이 교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점

열린 실험실

카페형 공유공간

산단책방(북쉐어)

참여형 나만의 전시

예상 Venue

밤에도 밝혀지는 문화공간의 밤



스펀지파크



카페 '게토'



청년문화센터

As-is

일 중심의 문화/ 청년의 자율적 실험 플랫폼 부재



- 일 끝나면 떠나는 단절된 근로 문화 (일터는 일터일 뿐, 교류 없음)
- 청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이 전무
- 획일적 행정 주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대표단

To-be

청년이 주도하고 함께 만드는 일상 속 열린 문화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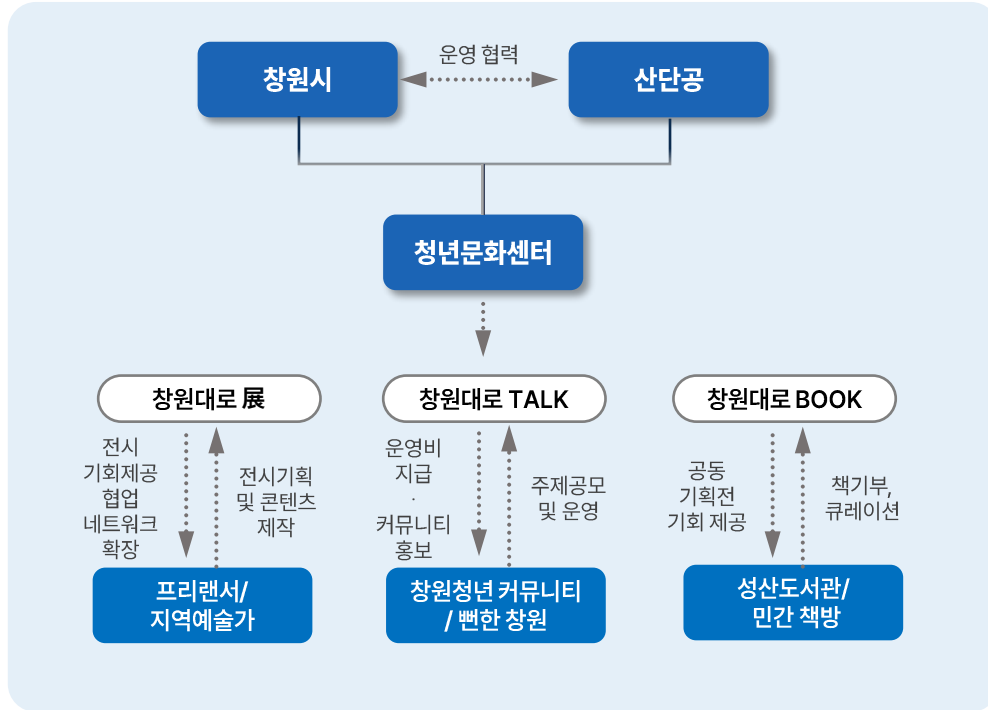
- 청년의 작은 시도와 교류가 일상화 되는 열린 공유 공간
- 산단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 자유로운 교류와 협업을 통해 '함께 만드는 문화 생태계'

"큰 축제, 공연도 좋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생활도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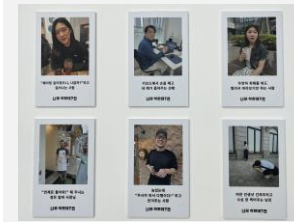
지역대표단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청년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상세 이벤트, 활동



창원대로 展 (창원 청년 사진/이야기 전시회)

- 월별 주제에 따라 청년이 보내온 사진과 이야기로 꾸미는 전시 프로그램.청년과 시민이 일상 속에서 포착한 장면을 전시로 공유
- 운영방식: 주제 공모 → 사진-이야기 접수 → 전시 기획 및 실행
- 주제 예시: 우리집 강아지의 희·노·애·락 / 회의 중 웃음 터진 순간 / 퇴근길, 나만의 루틴 순간 포착



창원대로 TALK (카페형 청년 커뮤니티)

- 청년이 직접 제안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 운영방식: 매달 청년 주제 공모 → 모더레이터(대로지기) 운영 → 소규모 예약제 진행
- 주제 예시: 퇴근 후, 나의 진짜 삶은 시작된다 /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법 / 요즘 나에게 '일'이란?



창원대로 BOOK (공유 큐레이션 책방)

- 청년이 직접 책을 기부하고, 자신의 문장을 남기는 북쉐어링 프로그램.
- 운영방식: 책 기부 및 큐레이션 → 전시 및 대여 → 새로운 책으로 교체·순환
- 특징: 추천 문장이나 스티커를 붙여 개인의 감성을 공유

기대효과

1 청년의 '일상참여형 문화활동'확산

- 거창한 문화행사 중심이 아닌, 일상 속 참여형 문화생태계 조성
- 청년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창원형 문화 실험 모델' 구축

2 산업단지의 문화적 이미지 전환

- 근로자·시민·청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산단의 사회적 활력 회복
- 지역 근로자의 문화복지 및 정주 만족도 제고

3 지역 청년-산단청년노동자 네트워크 활성화

- 다양한 주제가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시형 로컬 네트워크 형성
- 청년문화센터 중심으로 '참여-기획-운영'의 순환 구조 정착

4 창원문화산단 & 창원로컬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창원청년의 감성과 언어가 반영된 도시 브랜딩 콘텐츠 축적
- 콘텐츠기업, 전시기획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민간 확장 가능성 확보

지식 공유 프로그램, '커리어 커넥티드 멘토링'

서로의 커리어를 키워주는
창원만의 연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산단 청년 노동자(커리어 확장 욕구가 있는 층)
- 예상공간: 산단 내 교육 시설, 협력 기업의 회의실, 청년문화센터, 창원청년비전센터
- 시간: 분기별 1회, 연 3~4회 정기 운영
- 협력 필요: 산업단지공단, 청년문화센터, 산단 내 기업, 창원산업진흥원

As-is

- 산단 노동자들은 기술 숙련도는 높지만, 신기술·기획·디지털 역량 교육 기회가 부족
- 기업 내 교육이 생산성 중심으로 한정되어 자기개발형, 창의기획형 학습은 거의 없음
- 기술과 경험이 개인에게 축적되어 공유되지 않음

To-be

-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넘어 프로젝트형 협업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스마트 노동자'로 성장
- 기업은 내부 혁신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는 커리어 성장의 기회를 얻음

핵심 포인트

산단 내 노동자들이 각자의 직무 지식과 실무 경험을 서로 나누며
경력 개발을 촉진하며 성장하는 실무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산단 연대 강화

지식 크로스 멘토링

커리어 생태계 형성

아이디어 세부 내용

1.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구축

- 산단 내 시니어(경력 20년 이상), 주니어(경력 5년 이상) 근로자를 멘토로 구성
- 청년 근로자(멘티)는 관심 분야 및 성장 단계에 따라 시니어 멘토링 또는 주니어 커리어 멘토링 중 자유롭게 선택 참여
- 멘토 풀(Pool)과 멘티 신청을 기반으로 DB 매칭 시스템 운영
- 산업별·직무별(기계, 생산, 디자인, 기획 등)로 멘토-멘티 연결

2. 실무 지식 공유 세션(커피챗 & 네트워킹)

- 구성: 오프닝 토크 → 자유 대화/Q&A → 친목 네트워킹 → 후속모임
- 시니어는 현장 중심 노하우와 조직문화 전수를, 주니어는 실무 역량·커리어 성장 경험을 공유
- 대화 주제 예시: "리더십의 전환", "내가 배운 실패의 기술", "산단에서의 커리어 성장기"
- 후속 교류를 위해 Slack·오픈채팅 기반 커뮤니티 '커넥트 밴드' 운영

3. 관계 확장 및 후속 연계

- 참여자 간 자발적 재만남 및 협업 제안 유도
- 커피챗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2차년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연계
- 활동 우수자 '커넥트 앰버서더'로 선정 → 차년도 리더 및 멘토로 성장

장점(Benefit)

- 세대 간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커리어 성장 네트워크 형성
- 청년 근로자의 산단 내 성장 경험 및 이직 방지 효과
- 기업의 인재 육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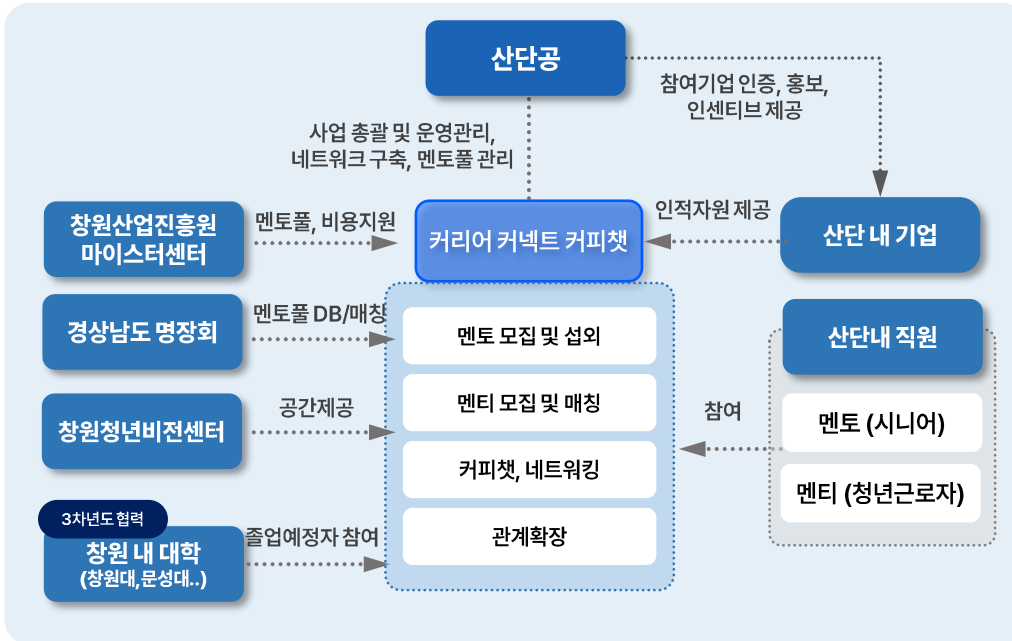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현업에 바쁜 고급 경력의 멘토를 퇴근 후 시간을 할애하도록 유인하기 어려움
- 기업 간 지식 교류 과정에서 민감한 핵심 기밀이 노출될 위험
- 퇴근 후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피로를 느끼고 중도 이탈할 가능성

지식 공유 프로그램, '커리어 커넥티드 멘토링'

서로의 커리어를 키워주는
창원만의 연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상세 이벤트, 활동



멘토 모집 및 섭외

- 전문분야에서 n년 이상 근무한 시니어 근로자 대상 멘토 풀 구성(기계, 생산, 디자인, 기획 등)



커피챗 & 네트워킹 운영

- 시니어의 현장 이야기/실무, 커리어, 인생 이야기/점심 네트워킹, 주제별 토크/후속모임



멘티 모집 및 매칭

- 청년 근로자는 관심 분야별 멘토 선택 후 자율 참여 (시니어/주니어 멘토링 중 선택)



관계 확장 및 후속 연계

- 재만남, 협업 제안, 후속 프로젝트로 연결
- 우수 참여자 '커넥트 앰버서더' 선정

단계별 확장 / 로드맵

1차년도 : 커리어 커넥트 커피챗
[소규모 네트워킹]

- 목표: 세대·직군 간 경계 없는 대화를 통해 산단형 커리어 네트워크의 출발점 마련
- 형태: 시니어 근로자(멘토)와 주니어 근로자(멘티)가 함께하는 소규모 대화형 네트워킹 프로그램
- 주요활동: 시니어의 현장 경험, 직무 노하우, 커리어 스토리 공유, 청년 근로자 대상 자유토크, 질의응답, 테이블 커피챗 운영, 참여 리더(멘토) 발굴 및 DB 구축

2차년도 : 커리어 커넥트 사이드 프로젝트
[프로젝트형 그룹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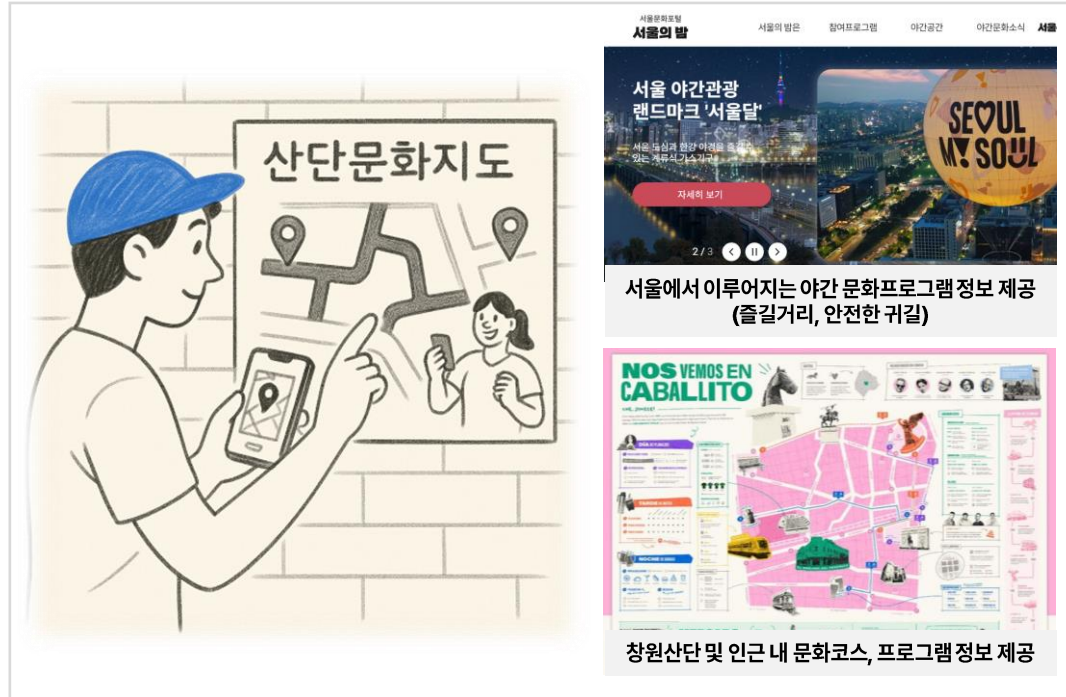
- 목표: 1차년도 네트워크 기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협업 경험 확산
- 형태: 멘토-멘티가 팀을 구성해 공모전·실무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
- 주요활동: 문제해결형 과제 수행(공동주제 또는 기업 제안 과제), 실무 리더십,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중심 멘토링 결과공유회 및 우수팀 발표 세션 운영

3차년도 : 커리어 커넥트 박람회
[오픈형 커리어 페스티벌]

- 목표: 산단 전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커리어 플랫폼으로 확장
- 형태: 창원 기계·방산·제조기업 중심의 콘퍼런스 & 리크루팅 박람회 개최
- 주요활동: 기업별 부스 운영, 직무별 강연·토론회, 청년·구직자 대상 현장 채용 및 리크루팅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포럼, 우수사례 전시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산단, '산단 문화지도'

창원의 자랑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자부심이 생기는 창원/산단이고 싶다.)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산단 근로자(퇴근 후 여가를 즐기고 싶은 층), 창원 시민(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고 싶은 층), 청년 관광객
- 예상공간: 온라인 지도 서비스(웹/앱), 센터 내 키오스크·디지털 사이니지, 버스정류장·공공안내판
- 시간: 실시간(낮/밤 모드 전환), 사계절별 업데이트
- 협력 필요: 창원시, 산단 입주기업, 지역문화재단, 기술개발사(앱 인터페이스 제작), 경찰서·안전센터

As-is

- 산단은 폐쇄적 공간·일 중심 공간으로 인식 → 시민 접근도 낮음
- 유희공간에서 이뤄지는 문화행사·체험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음
- 야간 시간대에 대한 안전·활동 정보 부족

To-be

-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쓰는 살아있는 산단문화지도
-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산단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 변화
- 낮에는 휴식·산책, 밤에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기능

핵심 포인트

산단문화지도는 유희공간의 문화활동, 안전귀가길, 사계절 명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문화가 있는 산단'을 체감하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지도 서비스

문화가 있는 산단의 재발견

실시간 정보 제공

낮/밤 모드 디자인

사계절 명소·안전정보 통합

아이디어 세부 내용

1. 인터랙티브 문화지도 서비스

- 웹/앱 기반 실시간 지도 플랫폼 구축
- 산단 내 유희공간, 카페, 예술작업실, 공공시설, 야외무대 등을 문화 거점으로 표기
- '지금 진행 중인 문화활동', '오늘의 프로그램', '야간 체험존' 등 시간대별 문화활동 현황 확인
- 공유자전거·누비자를 활용한 '문화 출퇴근 코스/콘텐츠' 추천

2. 낮/밤 모드 구성 (하루 주기형 인터페이스)

- 낮: 점심시간 산책코스, 주말 가족체험, 공공 예술존 정보
- 밤: 안전귀가길(조명·CCTV), 나이트러닝코스, 야간 전시/공연존 표시

3. 시민참여형 지도 업데이트

- 시민·노동자가 직접 사진, 후기, 행사 정보를 업로드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지도로 진화
- 문화활동 기록이 누적되면 → "창원산단 문화아카이브"로 발전

4. 오프라인 연계 장치

- 산단 주요 지점(버스정류장, 문화센터, 산단 진입로, 누비자 대여소)에 사이니지 설치
- 사이니지에 표기된 QR코드로 바로 접속해 주변 명소·행사 확인 가능
- 안전귀가 알림(시간·위치 기반), '가장 밝은 길' 안내 기능 제공

장점(Benefit)

- 산단의 폐쇄적 이미지를 '열린 문화지도'로 전환
- 시민·근로자의 참여로 실시간 문화 네트워크 구축
- 산단 내 안전귀가 시스템과 결합 → 야간활동 활성화 + 안전 강화
- 문화·공간·사람이 연결된 산단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자산화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운영 인력·데이터 관리 시스템 필요
- 위치·안전정보의 정확성 유지 과제
-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기술적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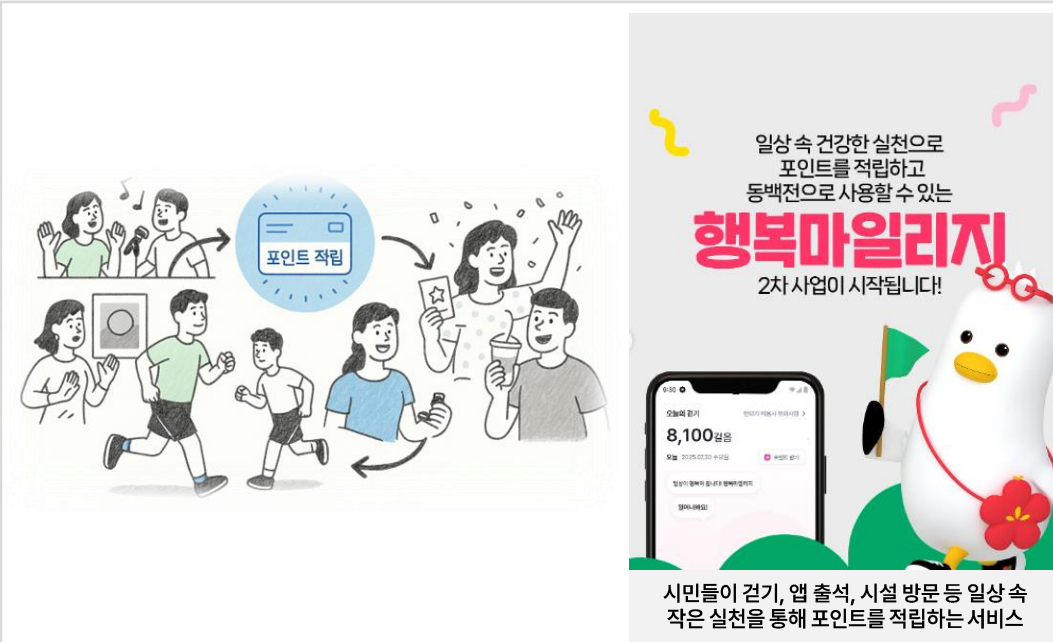
참여가 보상이 되는, '리워드 적립 문화패스'

Key finding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핵심 포인트

"나의 활동이 포인트가 되고, 포인트가 창원을 즐기는 혜택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를 '문화패스'라는 매력적인 보상과 연결하여,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가능한 문화생활의 확산을 유도하는 시민 수요 기반 리워드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

기업문화

참여확산

수요기반 보상

문화패스 활성화

아이디어 세부 내용

통합 리워드 플랫폼 '창원문화재단형 리워드 적립 문화패스' 구축

- **참여 활동 적립:** 문화선도산단 문화프로그램, CSR봉사활동, 산단 동아리 등 모든 산단노동자 문화 활동을 포인트로 적립
- **문화패스 혜택 교환:** 누적 포인트로 지역 연고 스포츠팀(NC, 경남FC 등) 관람권, 공연·전시 할인, 제휴 상점 쿠폰 등이 포함된 '문화패스' 혜택으로 교환
- **스포츠 향유형 혜택 강화:** 축구·야구·농구 등 지역 대표 스포츠팀과 연계한 경기 티켓, 응원 굿즈, 팬미팅 참여 기회 등을 문화리워드의 주요 교환 항목으로 구성 → "스포츠도 문화다"를 반영한 청년형 참여 동기 부여 장치로 작동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인증 및 연계 프로그램

- **'산단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산단 근로자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음악, 플로깅, 전시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문화리워드 포인트 적립 연동 → 활동 지속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형성
- **가족 단위 혜택 강화:**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문화 스탬프' 우대 할인, 활동 우수 '창원산단 대표 가족' 선정 등 가족 단위 참여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강화
- **생애주기별 혜택 로드맵:** 청년, 신혼,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문화 혜택 가이드 제공
- **'문화이끌기업' 인증제:** 노동자의 문화 활동 참여율이 높은 산단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단위의 참여 독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기업 및 공공 참여 유도: '문화이끌기업' 인증제와 '문화패스' 할인 혜택에 동참할 파트너(기업, 상점)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호 인센티브 설계가 필수적
- 통합 플랫폼(앱) 개발 및 운영: QR코드 인식,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가맹점 관리 등을 위한 안정적인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산단 출퇴근 노동자, 젊은 청년 노동자, 창원 소재 대학생 및 시민
- 가능성: 기존 '창원청년네트워크' 시민참여 확대방향, '창원문화예술패스'에 대한 마일리지 시스템 적용

As-is

- 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나 보상이 부족하여 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고 지속되지 않음
- 창원시민의 수요가 높은 콘텐츠로 문화혜택 보상을 마련하지 않음
- 문화생활이 다른 세대나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음(하는 사람만 함)
- 기업 내에서 산단 노동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문화 부재

To-be

- 참여 활동이 포인트로 적립되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 스포츠 관람, 소비 할인 등을 핵심 보상으로 설계하여 혜택의 매력도와 사용률을 높임
-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참여 저변을 넓힘
- '문화이끌기업' 인증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터의 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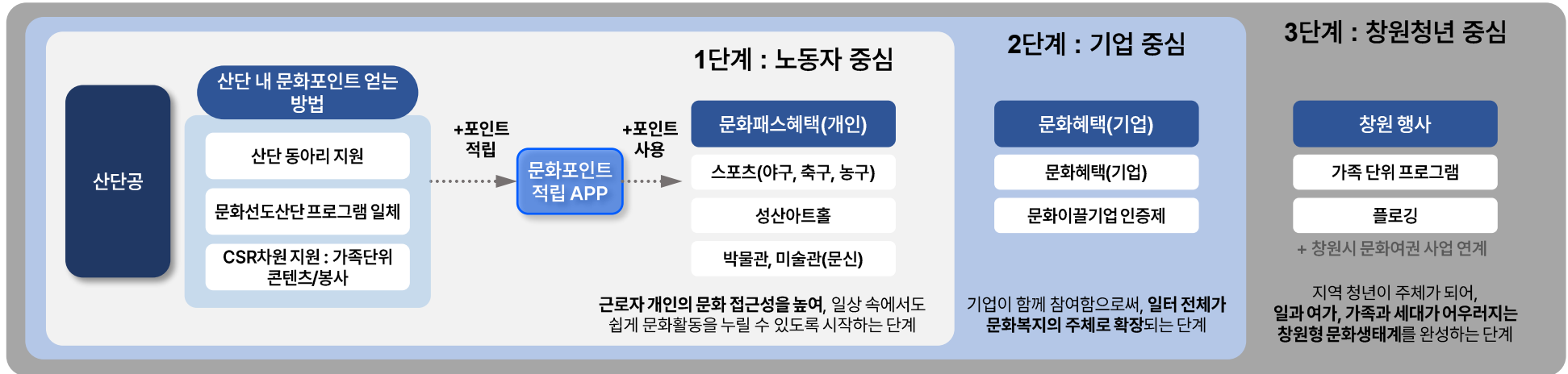
참여가 보상이 되는, '리워드 적립 문화패스'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문화리워드 혜택 제공 방안

창원문화산단형 문화리워드 적립 서비스(App)

- 문화공간을 이용하면 리워드를 적립해주는 창원문화산단형 문화리워드 APP
- 문화 참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온도'
- 문화 리워드를 볼 수 있는 적립 확인란

문화 리워드 적립 및 사용처 예시

산단 문화지도 (문화정보 제공)

- 문화리워드 적립이 가능한 활동과 사용 가능한 문화공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산단문화지도'를 통해 산단노동자의 문화 접근성을 높임



맞춤형 홍보/소통, '문화 큐레이션 허브'

Key finding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 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
 - 주말이나 퇴근 후 참여할만한 문화행사 정보를 놓치는 창원산단청년노동자 및 청년
 - 가족과 함께 즐길만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찾는 산단노동자, 창원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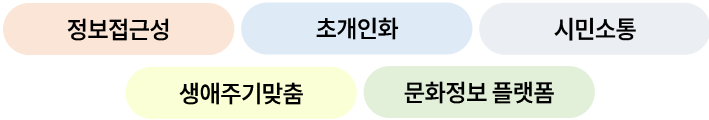


- 시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정보가 부족
- 창원시의 다양한 문화혜택과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지도가 낮음
- 문화정보 전달 방식이 단순화되어있고, 일방적임.

- 모든 문화정보가 통합 플랫폼에 모여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
- 생애주기별 로드맵 및 초개인화 구독제를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있음
- 시민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맞춤형 알림을 통해 놓치지 않고 참여

핵심 포인트

편화된 문화 정보를 통합하고, 시민 개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춰 큐레이션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을 행기는 도시 창원'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스마트 문화정보 플랫폼



아이디어 세부 내용

- 창원청년정보플랫폼 내 큐레이션 서비스 (UXUI) 및 기능 개선
- 통합정보구축: 창원내 모든 문화행사 정보를 한 플랫폼에 집계
 - 문화캘린더·문화지도 도입 : 창원시 내 위치, 일정 기반 문화정보 탐색기능을 반영한 UXUI 서비스 개선
 - 문화 MBTI Test : 이용자 문화소비 성향분석을 통한 문화취향 데이터 수집 및 맞춤형 추천
- 정보제공(홍보)방식 개선
- 개인화 큐레이션 : 문화 MBTI 테스트 결과·이용패턴 기반 자동 추천
 - 자동 알림(리마인드)서비스 : 이메일·카카오톡 등 멀티채널에 연동되어 사전에 정보안내
 - 참여리워드 : 이용자 문화프로그램 참여 및 활동에 따른 문화리워드 연동 및 적립

장점(Benefit)

-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 : 흩어진 문화행사를 한곳에 모아,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참여
- 맞춤형 문화경험 제공 : 이용자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만족도 향상 기대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예산: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할 플랫폼 개발에 상당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
- 정보 연동 및 실시간 업데이트: 여러 기관에 흩어진 문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 및 협력 체계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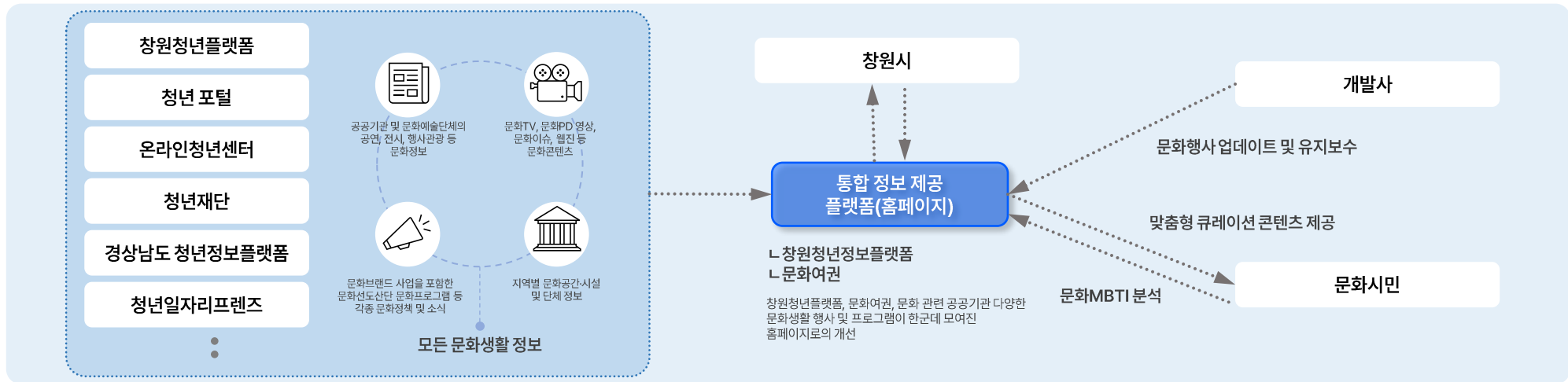
맞춤형 홍보/소통, '문화 큐레이션 허브'

창원이 미래세대를 키우기 좋은 교육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홍보되어야 한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운영 모델, 협력 체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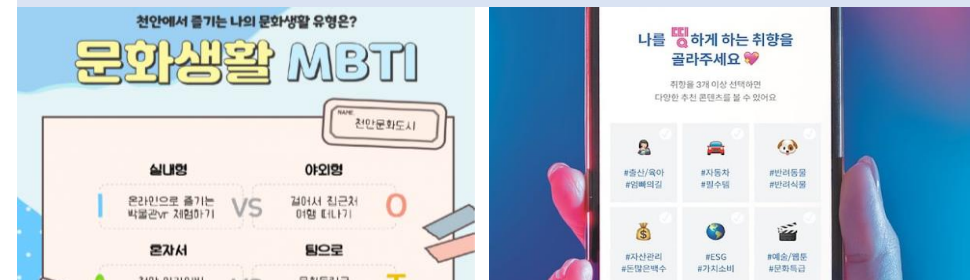
상세 이벤트, 활동

기존 창원청년정보플랫폼 내 큐레이션 기능(문화캘린더&문화지도) 도입



- 문화캘린더, 산단문화지도 기능(UXUI 개선)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주간/월간 문화행사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 외부 채널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 (예: 문자, 구독형 메일 등)

정보제공(홍보) 방식 개선



- 문화MBTI와 같은 사용자 성향 분석기능을 도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정보를 추천
-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등 외부 채널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예: 문자, 구독형 메일 등)

출퇴근길 문화활력, 'Culture Façade Project'

일할 맛나게 활력을 줄
긍정적인 마이크로(틈새) 경험이 부족하다

TECHxART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Folly 사이니지로 활용



출퇴근시간 정류소, 자전거보관소, 벽면을 통한 참여형 문화 경험

해당되는 페르소나/예상 공간

- 페르소나: 산단 출퇴근 노동자, 젊은 청년 근로자, 장시간 운전하는 직장인
- 예상공간: 산단 진입로 및 주요 교차로의 대형 벽면
- 시간: 출퇴근 시간대 (아침-저녁)
- 협력 필요: 산단 기업, 시 교통안전 부서, 미디어 아티스트, 전시 기획자

As-is

To-be

- 공장과 도로가 반복된 단조로운 풍경, 감상요소의 부재
- 출퇴근 길이 지루하고, 교류없는 이동의 반복
- 문화가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소비되고, 지속성 낮음
- 산업중심의 도시 이미지로 감성적 매력부족

- 지루한 산업경관과 일상의 리듬위에 문화적 숨결이 흐르는 산단거리 조성
- 단조로운 일상이 아닌, 참여와 교류가 일어나는 감성적 문화 모먼트 창출

핵심 포인트

‘산단의 지루한 경관과 일상’을 깨우는
‘문화 전시장+일상 참여소통+아카이빙 플랫폼’의 Wall로 전환정체시간을 문화적
경험으로 전환

실시간 상호작용

다양한 콘텐츠
확장성 多창원 산단만의
아카이빙

안전성 고려

아이디어 세부 내용

1. 리듬이 생기는 산단대로 거리, 컬처폴리 사이니지(Culture Folly)

- 공장과 도로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산단 경관에 100m 간격의 미디어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시각적 리듬’을 부여
- 사이니지에는 매일 교체되는 그래픽 아트, 문학 글귀,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노출
- “기계와 예술이 공존하는 거리”라는 상징성을 통해 산단의 풍경자체를 ‘문화경험공간’으로 전환

2. 멈춤이 즐거워지는 여유의 순간, 참여형 미디어 월(Media Wall)

- 신호대기나 버스, 누비자 정류장 등 출퇴근 중 정체 구간에서 모바일 메시지 참여형 미디어월 운영
- AI 필터링을 거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투과되고, 근로자 간 대화, 응원, 일상 공유가 가능
- 단조로운 이동시간을 ‘참여와 연결의 시간’으로 전환하여 산단의 하루에 감정의 온도를 더함

3. 남기는 문화, 함께 쌓이는 산단의 아카이빙(Industrial Cultural Archive)

- 메시지, 사진, 영상, 글귀 등 모든 콘텐츠가 자동 저장되어 ‘산단 문화 히스토리 아카이브’로 축적
- 단순한 소비형 문화에서 벗어나, 노동자/시민이 함께 기록을 만들어가는 생산적 문화 순환 구조
- 아카이브 자료는 이후 전시/브랜딩/정책 데이터로 활용되는 산단의 문화자산화

장점(Benefit)

- 단조로운 산단 거리가 ‘리듬감 있는 문화경관’으로 변화
- 출퇴근길이 지루한 이동이 아닌 ‘소통과 리프레시의 시간’으로 전환
- 산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 축적
- 도시 경관의 창의적 활용

단점(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해결 과제)

- 신규 Wall 설치·기존 Wall 활용 모두 관계기관(기업, 지자체 등) 협의와 공간확보 필요
- 유지관리 및 콘텐츠 품질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운영체계 필요
- 교통 시야와 조도 등 안전기준 검토 및 인허가 절차 필요



감사합니다

청년디자인리빙랩

